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 석사 학위논문

# 현대사회 일상적 풍경에서의 상징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건축적 경계물에 사용된

시각상징 및 문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mbols and Expressions

in Everyday Landscapes of Modern Society

-Focused on Visual Symbols and Patterns Used in

Architectural Boundaries-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김 지 현

# 현대사회 일상적 풍경에서의 상징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건축적 경계물에 사용된

시각상징 및 문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수 정

이 논문을 디자인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김 지 현

김지현의 디자인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1월

위 원 장 김 수 정

부위원장 백 명 진

위 원 윤 주 현



## 국문초록

현대 도시는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낸 기술 발전을 토대로 화려한 풍경을 자랑하지만, 그 도시 공간 속 개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유리되기 쉬워졌다. 이와 같은 개인의 객체화 현상을 극복하고 개인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되찾으려는 방안으로 그간 주변부로 여겨졌던 일상적 풍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sup>1</sup> 골목길이나 시장과 같은 일상적 풍경은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면서 동시에 도시 풍경에 특이성과 정체성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요인이지만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한 채 당연시되어왔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일상적 풍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관찰하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 창문, 울타리와 담장, 난간 등과 같은 도시 공간 속 경계물에 위치한 상징과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 경계는 영역을 한정 짓는 그 특성상 단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외부의 소통을 끌어내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계물의 표면에 장식된 갖가지 상징들은 단절된 경계에서 내부와 외부 혹은 공간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일조하며 경계의 소통적 측면을 강화한다.

---

<sup>1</sup> 김민지, “도시공간에서의 실천적 일상개념 연구”, 국민대학교, 2012, p.2.



전통에서 근거하는 상징에서부터 서양의 문명에 영향을 받은 상징까지 도시 공간을 수놓는 상징의 기원은 다양하다. 이러한 상징들은 무의미하게 복제되어 존재하기도 하지만 몇몇 상징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상적 삶이 소망하는 이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경계물의 성격을 강화한다. 이처럼 경계물에 장식된 상징은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형상과 비슷한 표현 방법을 통해 일률적인 모습으로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경계물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십장생문은 오랜 시간 디자인의 변화 없이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길상의 의미는 단절되고 눈에 띄지 않는 경계물 상의 고착화된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20세기 초 모더니즘 이후 건축, 디자인, 순수미술 분야에서 장식이 배제됐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장식은 대부분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면서 일상적 풍경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경계물은 휴먼스케일 안에서 인간과 건축의 접점을 만들어낸다는 점과 경계물에 장식된 상징이 건축 공간에 접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되어 일률적이고 비슷한 풍경이 주를 이루게 된 우리 주거 환경에서 거주자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경계물은 일상에 창조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도시 풍경 속 경계물을 관찰하고, 그 경계물에 장식된 상징들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분석해본 뒤,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물 내외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그 표현들을 연구하여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또한, 공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통일된 시각언어를 통해 공간과 연계된 다른 매체로 확장되어 통합적 아이덴티티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쇄물을 중심으로 경계물의 표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일상적 풍경과 경계물에 장식된 상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계물의 시각상징이 공간과 인쇄물에 이르는 통합적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 아이덴티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 이후에도 일상적 풍경에서 관찰 가능한 다양한 시각상징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일상적 풍경, 경계물, 상징, 표현, 장식, 도시공간

학번: 2016-21334

#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	2
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4
2. 일상적 풍경 .....	6
2.1 일상을 향한 관심 .....	7
2.2. 일상적 풍경의 가치 .....	9
3. 경계의 개념적 고찰 .....	11
3.1. 경계의 정의와 종류 .....	12
3.2. 건축적 경계물의 기능적 특성 .....	14
3.2.1. 문 .....	14
3.2.2. 창문 .....	16
3.2.3. 울타리와 담장 .....	18
3.2.4. 난간 .....	20
4. 경계물의 상징과 표현 관찰 .....	22
4.1. 경계물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	23
4.2. 일상적 도시 풍경 관찰 .....	29

4.2.1. 일상적 풍경 속 경계물의 상징 관찰 .....	31
4.2.2. 소결 .....	38
<b>5.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 .....</b>	<b>40</b>
5.1 사례연구 .....	41
5.1.1. 지역성의 표출 .....	41
5.1.2. 전통적 소재의 활용 .....	43
5.1.3. 다양한 표현 방법 .....	44
5.1.3.1. 상징의 활용 .....	44
5.1.3.2.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	47
5.1.3.3. 확장성을 가진 통합적 아이덴티티의 표현 .....	50
5.2 선행연구 .....	54
5.2.1. 퇴적된 도시 공간을 향한 관심 .....	54
5.2.2. 일상적 풍경 속 상징 채집 .....	56
<b>6. 최종작품연구 .....</b>	<b>60</b>
6.1. 전통소재의 새로운 표현 방법 연구 .....	61
6.2. 한글 타이포그래피 .....	71
6.3. 추상적, 기하학적 표현 .....	78
6.4. 최종결과물 .....	83

7. 결론 .....	89
-------------	----

참고문헌.....	92
-----------	----

Abstract .....	95
----------------	----

## 그 립 목 차

〈그림 1〉 키워드 요약 .....	5
〈그림 2〉 일상적 풍경의 모습 .....	9
〈그림 3〉 경계의 종류 .....	13
〈그림 4〉 울타리(좌) 담장(우) .....	18
〈그림 5〉 방호 울타리 .....	19
〈그림 6〉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난간 .....	21
〈그림 7〉 한국 전통 대문(좌) 서유럽의 대문(우) .....	24
〈그림 8〉 창호의 창살(좌) 스테인드 글라스(우) .....	25
〈그림 9〉 꽃담(좌) 유럽의 울타리(우) .....	26
〈그림 10〉 한국 전통 난간(좌) 서유럽의 난간(우) .....	28
〈그림 11〉 주택의 종류 .....	30
〈그림 12〉 한 가지 문양이 패턴화 .....	32
〈그림 13〉 각종 덩굴문양 장식들 .....	32
〈그림 14〉 동서양 전통에서 유래한 상징들 .....	33
〈그림 15〉 글라스 시트 속 상징들 .....	34
〈그림 16〉 창살과 창문 난간 속 상징들 .....	35
〈그림 17〉 전통 상징과 표현이 혼재된 모습 .....	36
〈그림 18〉 투시형 펜스(좌) 방호 울타리(우) .....	36
〈그림 19〉 전통 상징과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난간 .....	37
〈그림 20〉 식물 문양 .....	37
〈그림 21〉 경계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 .....	38
〈그림 22〉 관찰 내용 정리 .....	39
〈그림 23〉 싱가포르의 문살과 창살 .....	41
〈그림 24〉 왕츠위안, 〈리타이포 차이나〉 .....	42
〈그림 25〉 산시성 마을 풍경 .....	42
〈그림 26〉 아랍문화원의 조리개와 아라베스크 문양 .....	43

〈그림 27〉 아랍문화원 외부 .....	44
〈그림 28〉 셔터가 시공된 모습 .....	45
〈그림 29〉 리콜라 사탕의 상징인 허브잎 .....	46
〈그림 30〉 리콜라 공장 내부 .....	46
〈그림 31〉 대영도서관 입구와 대문 상 .....	47
〈그림 32〉 Fenceless(좌), Dordrecht Tunnel(우) .....	48
〈그림 33〉 한글대문 .....	49
〈그림 34〉 다이칸야마 츠타야의 외부,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	51
〈그림 35〉 마츠야 긴자 백화점 작업 .....	52
〈그림 36〉 Zhi Art Museum 건물 외부와 아이덴티티 .....	53
〈그림 37〉 퇴적된 도시공간의 풍경 .....	54
〈그림 38〉 숨씨, 2016 .....	55
〈그림 39〉 글라스 시트의 예 .....	56
〈그림 40〉 서울의 유리풍경(2017) 작업 상세 1 .....	57
〈그림 41〉 서울의 유리풍경(2017) 작업 상세 2 .....	58
〈그림 42〉 서울의 유리풍경(2017) 작업 상세 3 .....	59
〈그림 43〉 십장생도 .....	62
〈그림 44〉 주조 기법으로 제작된 십장생문 경계물의 예시 .....	63
〈그림 45〉 타공 기법의 예 .....	64
〈그림 46〉 십장생 스케치1 .....	64
〈그림 47〉 십장생 스케치2 .....	65
〈그림 48〉 십장생 스케치3 .....	65
〈그림 49〉 십장생 스케치4 .....	66
〈그림 50〉 십장생 그래픽 메인 유닛 .....	67
〈그림 51〉 십장생 그래픽 보조 유닛 .....	68
〈그림 52〉 리소그래피 시안 .....	70
〈그림 53〉 입춘방 예 .....	71
〈그림 54〉 경복궁과 운현궁의 꽃담 .....	72

〈그림 55〉 요철 표현의 예 .....	73
〈그림 56〉 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1 .....	74
〈그림 57〉 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2 .....	75
〈그림 58〉 한글 타이포그래피 경계물 예: 주조 대문/벽 .....	76
〈그림 59〉 형압 기법의 원리 .....	77
〈그림 60〉 형압 기법으로 표현한 예 .....	77
〈그림 61〉 아파트의 창문.....	78
〈그림 62〉 서울의 풍경 .....	79
〈그림 63〉 글라스 시트 스케치.....	80
〈그림 64〉 글라스 시트 최종 시안-아파트 중첩(좌), 산과 빌딩숲 그리고 강(우) .....	81
〈그림 65〉 아파트 중첩 난간을 위한 그래픽 .....	82
〈그림 66〉 빌딩숲 난간을 위한 그래픽.....	82
〈그림 67〉 십장생 울타리.....	83
〈그림 68〉 십장생 울타리의 평면적 표현 .....	84
〈그림 69〉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벽돌 .....	85
〈그림 70〉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형압표현 .....	86
〈그림 71〉 도시 풍경을 담은 글라스 시트 .....	87
〈그림 72〉 도시 풍경을 담은 난간.....	88
〈그림 73〉 전시 설치 모습.....	90



## 제 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과거 일상은 진부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개인의 일상이 전반적으로 파괴된 데 이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였고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일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sup>2</sup> 매일의 일상은 삶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여 박탈감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상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여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 관점에서 벗어나 수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수출과 산업의 발달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발전한 한국 디자인의 특수한 성장 배경을 돌이켜 봤을 때 디자인 분야 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개개인의 삶의 배경인 일상이 누적된 풍경은 도시의 특이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적 일상과 디자인의 괴리감을 좁히고 익숙한 풍경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창조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적 풍경을 향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sup>2</sup> Ibid.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일상적 풍경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소재 중에서 경계물 속의 상징과 그 표현방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경계란, 일반적으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의미하는데 이어질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미의 경계 중에서도 영역을 한정하며 실재하는 경계인 건축적 경계에 주목한다. 건축적 경계 중에서 문, 창문, 울타리, 난간 등은 한 영역을 다른 영역과 분리하면서 동시에 두 영역 간의 소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대지에 하나의 영역을 설정해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경계를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건축적 경계에 장식된 상징은 그 경계의 의미를 완성 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물은 그 특성상 선으로 인식되지만, 면적인 요소를 가지는 동시에 공간 속에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일상적 풍경 속에서 다수의 사람은 문이나 창문, 울타리와 난간 등의 경계물에 여러 가지 상징과 패턴으로 장식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물의 상징은 무의미하고 무분별하게 복제되어 사용되는 듯 보이지만 몇몇 상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개인의 삶의 소망이나 기원, 벽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경계물의 내부와 외부, 인간과 공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여 경계물의 소통적 성격을 강화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이 연구는 일상, 경계, 상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일상적 풍경이라는 배경 안에서 건축적 경계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표현된 시각 상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일상이 주목을 받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이를 향한 학계의 관심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일상적 풍경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경계의 정의와 범주에 따라 경계의 종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정리한 뒤 그중에서도 일상적 풍경을 만들어내는 건축적 경계를 중심으로 각 경계물의 기능적 특성을 정리해본다. 이는 건축적 경계를 장식하는 시각 상징이 각 경계물의 특성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며 커뮤니케이션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서 각 경계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어떻게 장식했는지 간략하게 짚어본다. 이것은 이어서 살펴볼 실제 도시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계의 상징과 표현이 어디서 근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일상적 풍경 속에서 건축적 경계의 상징과 표현을 관찰해보며 현 상황을 진단해본다. 더하여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서 건축적 경계를 장식하는 다양한 상징과 표현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종 작업은 건축적 경계의 소통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경

계물의 특성과 재료를 고려하여 시각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다. 앞선 조사와 관찰을 바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된 상징을 변용하거나 현대의 풍경에 걸맞은 새로운 상징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이를 평면 매체에 적용하여 공간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차원의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가진 표현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1> 키워드 요약

## 제2장 일상적 풍경

## 2.1. 일상을 향한 관심

개인은 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 이전까지 생산 시스템의 전체를 관리하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전체주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개인의 일상은 전반적으로 파괴되었고 이어 자본주의의 대두로 포디즘(Fordism), 맥도날디제이션(McDonaldization)과 같은 표준화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개인은 전체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여겨지게 된다. 자본 위주의 시스템은 일상을 무력하고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개인은 사회뿐 아니라 삶에서마저 소외되는 경향이 깊어졌다. 개인의 객체화와 소외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국가와 시스템을 다루는 것에서 개인으로 옮겨져 왔고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방안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에 주목하게 된다.<sup>3</sup>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상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현의 〈일상에서 조우하는 사물들을 통한 디자인 특성의 발견과 적용〉과<sup>4</sup> 같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름 없는 디자인의 사물들에 주목한 연구뿐 아니라 김영찬 외 〈한국 디자인역사 연구에 있어 일상사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

<sup>3</sup> Ibid.

<sup>4</sup> 심지현, “일상(日常)에서 조우(遭遇)하는 사물들을 통한 디자인 특성의 발견과 적용”,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1.

<sup>5</sup> 디자인역사연구를 디자이너나 디자인 작품 중심에서 벗어나 수용자인 일반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텍스트 이외의 다양한 사료를 통해 연구하여 한국 근대 디자인사의 공백을 메우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상과 괴리되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디자인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근거한다. 더하여 그 배경에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수한 성장 과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디자인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술 수출’이라는 구호 아래 비교적 최근까지도 산업사회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디자인 업계는 그만큼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서양 디자인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한국적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졌고<sup>6</sup> 디자인 전문 분야와 대중의 현실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sup>7</sup>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앞으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 지속해서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

<sup>5</sup> 김영찬, 장호현, “한국 디자인역사 연구에 있어 일상사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09, p. 201-210.

<sup>6</sup>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2013.

<sup>7</sup> 최범,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망』, 안그라픽스, 2016.



## 2.2. 일상적 풍경의 가치

일상은 ‘매일 체험되는 보통의 것이며 모두에게 영위되는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삶’을<sup>8</sup>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일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일상적 풍경’이라고 정의하는 풍경은 골목길이나 시장과 같은 대다수에게 익숙한 풍경을 일컫는 것으로 한다.



<그림 2> 일상적 풍경의 모습

---

<sup>8</sup> 김민지, op. cit.

홍보 책자나 동영상의 잘 정비되고 포장된 깔끔한 도시풍경은 삶의 실체가 없이 부유하는 허상적인 이미지라면 시장이나 골목길 풍경은 비록 복잡하고 지저분할지라도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으며 각자 다른 삶이 합쳐져 빚어내는 실체적 풍경이다.<sup>9</sup> 이곳에 누적된 시간의 풍경은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고유의 지역성을 뿜어낸다. 고유의 지역성이 형성하는 지역문화 관습은 특유의 친밀감을 만들어내며 문화적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찰과 연구의 가치가 있다.

디자인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은 특정 부류가 아닌 다수의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작은 일상의 풍경을 직접 관찰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숨결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sup>9</sup> 승효상, “[승효상의 ‘我記宅處’] 코르도바 골목길엔 시간의 윤기가 흐른다”, 중앙일보, 2011.02.26.

### 제3장 경계의 개념적 고찰

### 3.1. 경계의 정의와 종류

경계(境界)란, 기본적으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한계를 의미하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공간 속에서 사용되면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되는 한계를 의미한다.<sup>10</sup>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특정한 영역 내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정하는 행위이며, 이 결과로 얻어지는 내부의 동질성은 경계의 외부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경계는 이렇게 영역적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 영역 간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기도 하는데<sup>11</sup>, 분리와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다.

경계는 그 범주에 따라 landscape 차원의 경계, 도시 차원의 경계, 건축적 차원의 경계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Landscape 차원의 경계란 산맥, 강, 바다 등의 자연환경 내에서 지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경계를 의미한다. 도시 차원의 경계란 과거의 시벽(市壁)이나 교두보 등 도시의 영역을 구분하던 경계를 의미하며 현대의 도시는 그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sup>12</sup> 건축적 차원의 경계란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에 놓여 어떤 공간을 한정하는 것

---

<sup>10</sup> 다음 국어사전, “경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13468&supid=kku000018642>. (2017.09.15)

<sup>11</sup> 정순목 and 황덕원, “경계의 개념으로 본 현대건축의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1(1):p. 267-270.

<sup>12</sup> 保坂陽一郎, 『경계의 형태』, 진경돈 역, 집문사, 1991, p.38.

으로 일반적으로 벽, 울타리, 문, 창문 등을 의미한다.<sup>13</sup>

앞으로의 연구는 일상적 풍경을 배경으로 경계의 상징을 통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것이므로 경계의 여러 범주 중에서도 실제적이며 일상적 풍경을 만들어내는 건축적 차원의 경계인 문, 창문, 울타리와 담장, 난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같은 건축적 경계로 볼 수 있는 벽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소통보다는 단절, 구획의 의미가 더 강하여 연구의 주제 및 목적에서 벗어나기에 제외하고 진행할 것이다.

또한, 경계가 가진 추상적인 의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건축적 차원의 경계를 의미하면서 물성을 가진 경계임을 강조하는 '경계물(境界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 경계의 종류

<sup>13</sup> 조은오, “Louis I. Kahn 주택작품의 경계공간에 의한 영역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 3.2. 건축적 경계물의 기능적 특성

### 3.2.1. 문

문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그 내부의 방의 출입구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개구부를 뜻한다.<sup>14</sup>

우리가 흔히 문틀이라고 알고 있는 문형이 있고 그 가운데에 문짝이 있어 이것을 여닫음으로써 내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문의 역할이지만 경계 구성자 즉, 벽이 내부와 외부를 나눌 때 그 두 영역을 연결해주는 것도 바로 문이다. 경계가 명확할수록 개구부의 역할은 중요해지며 경계를 구별하는 동시에 그것을 연결하는 상반된 역할을 한다. 문은 물리적으로 방어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견고하고 단단해야 하며, 문과 그 주위의 형태는 그 문과 내부의 공간을 소유하는 사람의 명예, 위신, 출생, 정통성 등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등 건물의 위엄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sup>15</sup> 또한 문은 종교적 제례와 관련이 깊는데 문턱을 건넌다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입장을 뜻한다. 현재에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의 위치나 배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과거의 의식적인 중요성보다는 기능적인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sup>14</sup> 개구부란, 채광, 환기, 통풍, 출입을 위하여 벽을 치지 않은 창이나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네이버사전, “개구부”, <https://goo.gl/z1A357>. (2017.09.10)

<sup>15</sup> 保坂陽一郎, op. cit.

아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에세이 <다리와 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문과 경계에 대한 철학적 통찰력이 엿보이는 글이다.

문이 이를테면 인간들의 공간과 그 밖에 남은 모든 것 사이에서 하나의 연관성을 형성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부와 외부 사이의 분리를 뛰어넘은 실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은 또한 열릴 수 있으므로, 그것이 닫혀있는 것은 단순히 조직적이지 않은 벽보다 이 공간의 바깥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더 강한 고립의 감정을 제공한다. 벽은 말하지 않지만, 문은 말한다.

인간은 어떤 경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계를 설정하는 존재다. 인간의 주거공간이 문으로 닫혀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연속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자연적 존재로부터 한 조각을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로써 형태가 없던 경계에 형태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계가 지닌 의미와 존엄성은 문의 역동성이 상징하는 것, 즉 언제라도 그런 경계를 벗어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존재한다.

게오르그 짐멜, <다리와 문>

이처럼 문은 단순히 어떠한 기능성을 가진 건축의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며 인간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시 내 일상적 풍경의 관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따라서 문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외부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문과 현관문으로 한정하여 관찰할 것이다.

### 3.2.2. 창문

환기와 채광 바깥 풍경을 조망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입면을 장식하기 위해 벽에 만든 구조물로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을 주목적 하지 않는 건물의 개구부이다.<sup>16</sup>

사람의 눈을 ‘영혼의 창’이라 비유하는 것처럼 창문은 상징적으로 눈을 의미해왔다. 외부에서 본 건물의 파사드를 얼굴이라고 보았을 때 문을 입으로 여기고 창을 눈으로 여기며 창살이 건물의 표정을 만들기도 한다. 풍수에서는 창문을 인간의 눈으로 여길 뿐 아니라 허파로 여기기도 해서 건물의 크

---

<sup>16</sup> 위키피디아, “창문”, <http://bit.ly/2wdkOJs>. (2017.09.10)



기와 방향에 따라 창이 놓이는 위치를 중요시했다.<sup>17</sup> 또한 공간의 내부에서 창은 사람의 심성에 직접 영향을 주고 계절에 따라 새로운 감각을 지니게 하는 정신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창살의 무늬나 창문의 패턴 등을 통해 미적인 요소를 표현하기도 하며, 공간 내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성상 종교적인 면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건축의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이다.<sup>18</sup>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문과 창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며 일례로 창과 문을 통틀어 ‘창호’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창의 재료가 발달하고 유리가 사용되면서 외부 풍경을 조망하고 더 적극적인 개방감을 느끼는 현재의 창문 개념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sup>20</sup>

---

<sup>17</sup> 정광영, “‘창문의 기능과 역할’ .. 동/남쪽은 크게”, 한국경제, 1996.12.27,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ew.php?aid=1996122701441>. (2017.09.10)

<sup>18</sup> 김미령,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6.

<sup>19</sup> 김정아, “門의 개념을 주제로 한 도제 실내분수 제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0.

<sup>20</sup> 김현진, “건축디자인 요소로서 창에 의한 공간연출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996, p.5.

### 3.2.3. 울타리와 담장



<그림 4> 울타리(좌) 담장(우)

울타리는 풀이나 나무 등을 엮어서 경계를 지어 다용도로 막아놓은 시설을 말하며 영어로는 펜스(fence)라고 하는데 나무나 풀 등을 엮어 만든 것이나 철사를 꼬아 만든 철조망, 도금한 철선으로 만든 와이어메시 펜스 등 철재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흙이나 벽돌 따위로 쌓아 올려 내부를 완전히 둘러막아 시선을 차단한 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벽이나 담장이라고 부른다.<sup>21</sup> 정리하면, 울타리와 담장의 차이는 시선의 차단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울타리와 담장이 내부공간을 둘러막아 경계를 짓는다는 점에서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고 하나로 묶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울타리와 담장은 대지의 경계선을 구획하여 토지의 소유를 드러내고, 방어의 수단으로써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 소유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적으로 공간 분할이나 동선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치되거나 조경요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 온도조절, 풍량조절, 일조 조절

---

<sup>21</sup> 위키피디아, “울타리”, <https://ko.wikipedia.org/wiki/울타리>. (2017.09.11)

등과 같이 미기후를 조절하는 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기념되는 영역을 둘러 기념비적인 성질을 강조하고 상징성과 중요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22</sup>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울타리를 방호 울타리라고 한다. 주로 차도의 반대편인 방호 울타리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sup>23</sup> 보호 영역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와 어울리는 다양한 상징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 일반적인 방호 울타리의 예이다.



<그림 5> 방호 울타리

<sup>22</sup> 임도열, “조선후기 전통가옥 담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2013, p.4.

<sup>23</sup> 국토 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2012, p.5.

### 3.2.4. 난간

난간은 층계나 다리 혹은 마루와 같이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장식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sup>24</sup> 난간은 한자로 欄(난간 난) 干(방패 간)이라고 표기하며, 欄은 木(나무 목)과 欄(막을 란)이 합쳐진 것으로 풀이하면 "나무로 막는다"라는 뜻이 있고<sup>25</sup> 干도 그 의미상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담장이 외부의 침입이나 시선을 "막는다(defend)"는 의미가 강하다면 난간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보호하다(protect)"라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난간은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건축에서 의장적 요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sup>26</sup>

난간은 담과 비교했을 때 시선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얇고 선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안전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난간 내부의 공간폭이 일정 간격 이하여야 한다.<sup>27</sup>

---

<sup>24</sup> 네이버 사전, "난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6797800>. (2017.09.11)

<sup>25</sup> 김종식, "금속난간 장식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0, p.4.

<sup>26</sup> 장운선, "소규모 상업공간에서의 계단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1998, p.12.

<sup>27</sup> Elliott O. Stephenson은 그의 연구를 통해 모든 연령의 안전을 위해 계단 난간의 안전한 갭은 4인치 약 10센티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간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고려해야하고 장님의 지팡이를 위한 가이드도 제공해야 한다.

『Elements of Architecture at the 2014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 Stair』, Koolhaas, Rem, et al., Marsilio, 2014



<그림 6>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난간

## 제4장 경계물의 상징과 표현 관찰

## 4.1. 경계물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이 장에서는 동서양이 경계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경계물을 장식하던 상징 요소를 대략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동양을 대표로 한국 전통건축의 경계물을 살펴보고 서양을 대표로 서유럽 국가의 경계물을 다뤄보기로 한다.

### • 문

먼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문을 통과하는 행위를 중요시했으며 사람들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했다.<sup>28</sup> 이를 종교적인 의미로 승화시켜 대문에 입춘방을 부착하고,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면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오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금줄을 매다는 등 문을 통과하기 전에 영혼을 정화하려는 행위로 이어졌다.<sup>29</sup>

---

<sup>28</sup> 백중렬, “도판을 이용한 문장식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6, p.1.

<sup>29</sup> 김정아, 門의 개념을 주제로 한 도제 실내분수 제작 연구. 1990,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1



<그림 7> 한국 전통 대문(좌) 서유럽의 대문(우)

서유럽에서 가문의 문장이나 그 속의 상징을 활용해 대문을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토지, 공간의 소유를 표현했다.

#### • 창문

전통건축에서 창문은 문과 함께 통틀어 창호(窓戶)라고 표현했으며 건물 내의 문과 창호의 구분이 모호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창호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유리는 신라 시대 때 그 흔적이 보이지만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개화기 때에 일본을 통해 서양 문물의 유입되면서 건축적으로 활용된다.<sup>30</sup> 그 이전에 우리 창호의 주요한 재료는 창호지였으며 창호지는 빛을 은은

<sup>30</sup> 네이버 지식백과, “유리창”, <https://goo.gl/yXy2QK>. (2018.01.20)



하게 투과하여 실내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보온효과 등의 실용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sup>31</sup> 여기에 더해 창살 문양은 꽃살문, 아자문, 만자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장식적 요소로서 실내외에 표현되었다.

영어 window의 어원은 ‘wind eye’, ‘wind hole’로 직역하게 되면 바람의 눈, 바람구멍이라는 의미인데,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경계로서 ‘eye hole’ 즉, 보기 위한 구멍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sup>32</sup> 서유럽은 오래전부터 유리가 건축 창 의 재료로서 활용되었고 특히 중세시대 때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장미문양을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를 실내공간에 종교적 분위기를 배가시키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창의 장식적 특성이 극대화되었다.



<그림 8> 창호의 창살(좌) 스테인드 글라스(우)

<sup>31</sup> 이현수 외, “동서양 종교건축 전통창의 특성 비교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2012 Vol.11, No.5, p.280.

<sup>32</sup> 김현진, op. cit., p.4.

• 울타리와 담장



<그림 9> 꽃담(좌) 서유럽의 울타리(우)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내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되는 담을 활용하여 공간의 경계를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신분 계급 차이나 남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요소로써 활용했다.<sup>33</sup>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담장의 형태, 마감, 높이를 제한하고 궁궐의 담장에만 석회를 사용하여 치장할 수 있었다.<sup>34</sup> 조선 시대에는 상민들의 경우 주변의 자연적인 재료로 수수한 담을 세웠던 반면, 양반들은 담을 조경의 일부분으로 여겨 기하학적 문양이나 동물문 혹은 길상 문자를 새긴 꽃담을 세웠다. 또한, 양반의 권위를 위해 높

<sup>33</sup> 이윤정, “한국 전통담과 그 현대적 재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p.16-17.

<sup>34</sup> Ibid.

은 담장을 쌓아 내부 공간의 노출을 제한했고,<sup>35</sup> 여성의 공간을 두르는 담장은 그 높이를 다른 것보다 높이 하여 남녀의 성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였다.

서유럽의 궁전건축에서는 시선 통과가 자유로운 울타리로 건물의 경계를 구획했는데 이 울타리는 앞서 설명한 대문과 그 표현의 맥락을 같이하여 대문에서 표현되었던 가문의 문장이나 가문의 상징 등이 연장되어 울타리에 표현되었다. 울타리의 상단에는 주로 뾰족한 상장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내부공간에 안정감을 주었다.

---

<sup>35</sup> Ibid.

## • 난간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건축에서의 난간은 다리나 한옥의 마루에 설치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리 난간에는 해태를 조각하여 다리를 건널 때 해태가 선 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해 상벌을 내리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고, 마루 난간의 구름문은 속세와 구분된 선경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난간에 둘러싸인 마루 위의 사람을 신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sup>36</sup>

또한, 서유럽의 다리는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난간 또한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그 외 계단의 난간을 보면 주로 식물문으로 장식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0> 한국 전통 난간(좌) 서유럽의 난간(우)

<sup>36</sup> 장영창,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8, P.44-45.

## 4.2. 일상적 도시 풍경 관찰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일반 도시민의 일상적 풍경 속 경계물의 사용 양태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각각의 개인마다 생각하는 일상적 풍경은 제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일반적인 일상을 다뤄야 한다는 점과 관찰대상인 경계물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찰할 지역 또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독주택지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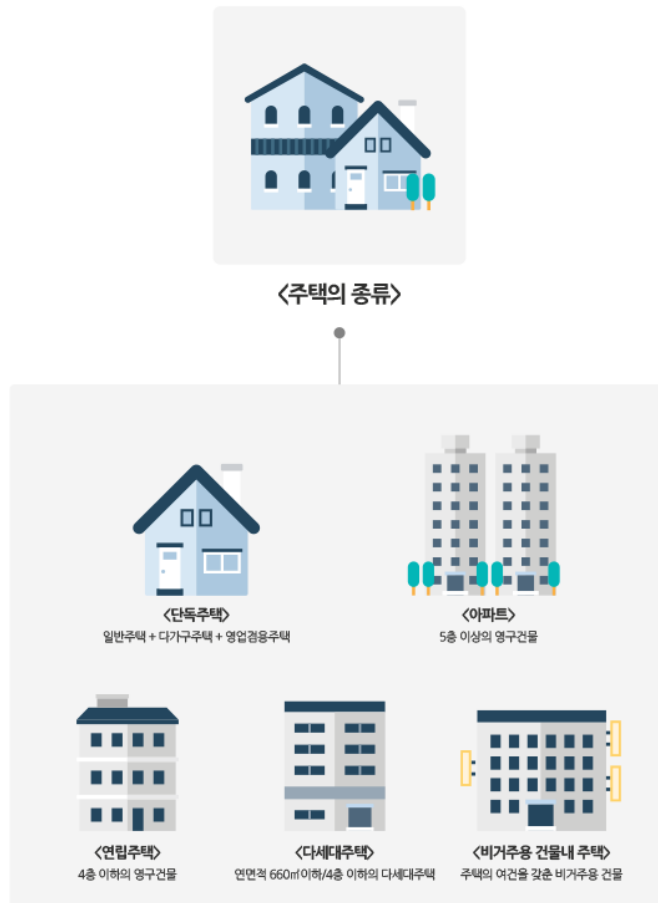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 그리고 영업겸용주택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거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만들고 있어 누적된 풍경을 관찰할 수 있고, 전통건축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흔적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출입이 제한적인 아파트 단지와 비교했을 때, 앞서 언급한 문, 창문, 담, 난간 등의 경계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단독주택의 건축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특성상 장식적 요소를 다채롭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 주거의

---

<sup>37</sup> 네이버 지식백과, “단독주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3996&cid=58453&categoryId=58453>. (2018.01.20)

다양성 회복이라는 이슈 속에서 아파트에 편중된 현재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써 다가구주택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sup>38</sup> 점에서도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1> 주택의 종류(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sup>38</sup> 임희준, “다가구주택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4.

#### 4.2.1. 일상적 풍경 속 경계물의 상징 관찰

##### • 문

문은 외부인을 나의 공간으로 맞기 전 마주하는 첫인상이다. 시공업자에 의해 경계물이 일괄적으로 선택되는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개인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는 단독주택가에서는 공간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

대문과 현관문을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이 한 가지 문양이 패턴화되어 문살과 같이 표현된 현관문이 있다. <그림 14>와 같이 십장생, 사군자 상평통보 등의 한국 전통 상징이나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백합꽃 문장이나 식물 무늬 장식 등 서유럽에서 유래한 상징들이 주물 방식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한때 부잣집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전국적으로 유행을 탄 사자 머리 문고리 또한 서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는 창문에 주로 쓰였던 스테인드글라스가 문에 사용된 예도 있다. 그 외에 대문을 제작하고 남은 철판을 얇게 잘라 각종 덩굴 문양 등을 만들어 장식한 예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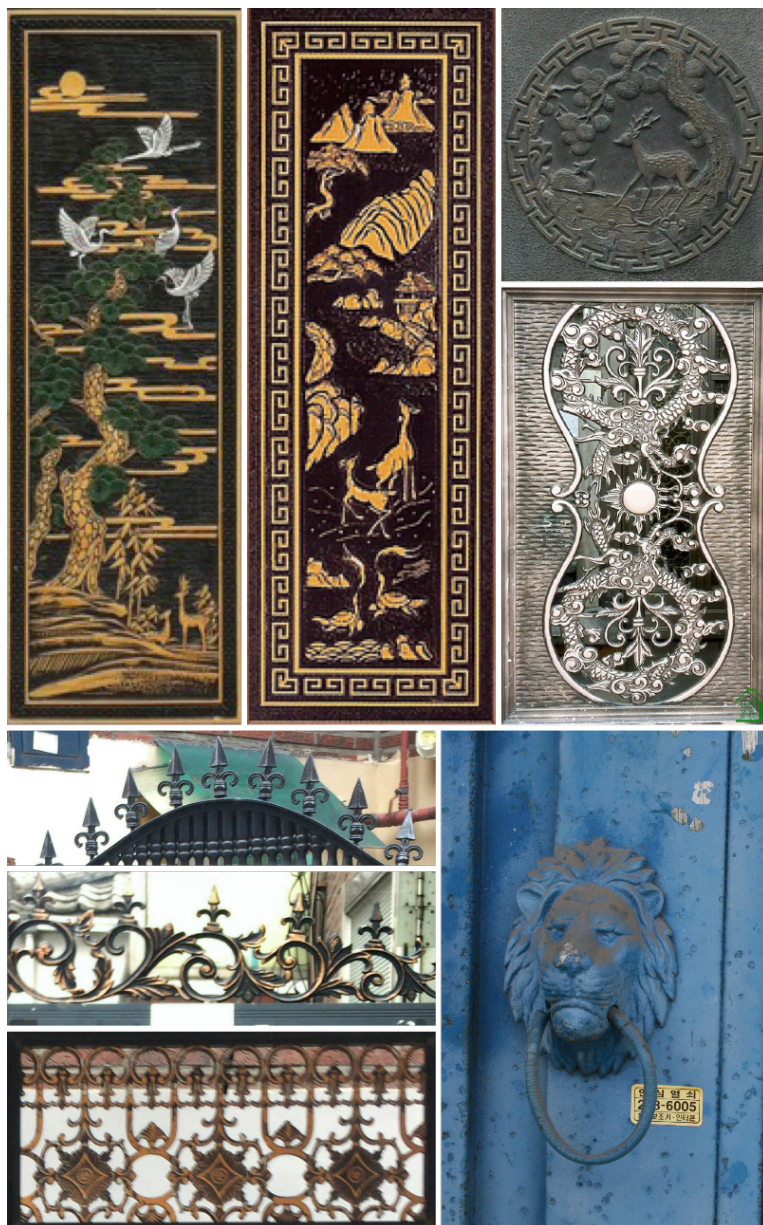


<그림 12> 한 가지 문양이 패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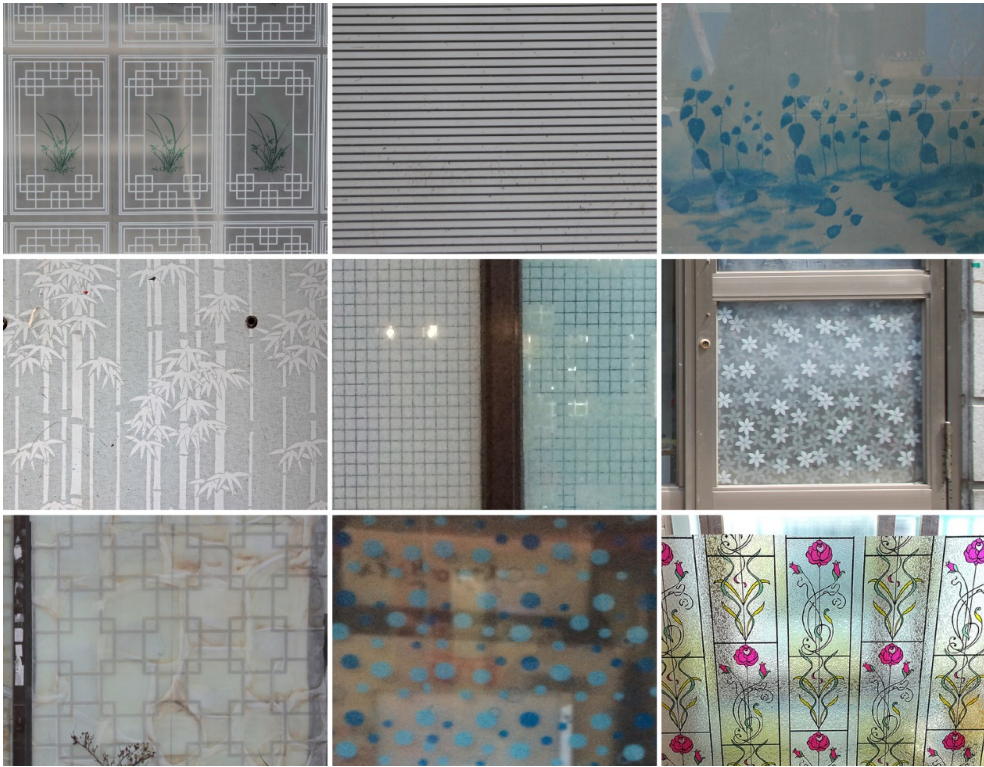
<그림 13> 각종 덩굴 문양 장식들





<그림 14> 동서양 전통에서 유래한 상징들

• 창문



<그림 15> 글라스 시트 속 상징들

창문에서는 창문 유리에 붙이는 글라스 시트와 방범창의 창살 모양에서 다양한 상징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글라스 시트에는 난초 대나무 전통창살 무늬 등 역시 전통에서 유래한 상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선, 블라인드, 사각형으로 구성된 것과 다양한 꽃과 식물로 장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살에서는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과 함께 중간중간 하트나 다이아몬드, 식물 덩굴 등을 표현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6> 창살과 창문 난간 속 상징들

#### • 울타리와 담장

담장의 상단부나 투시형 펜스 그리고 방호 울타리에서 여러 상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6>과 같이 한국 전통 건축에서 꽃담에 표현했던 여러 문양이나 상단의 기와를 본뜬 것, 벽돌로 쌓은 담장 상단부에 서유럽의 장식을 가져와 표현한 것 등을 볼 수 있다. 투시형 펜스는 직선 곡선을 활용하여 여러 식물, 덩굴 문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방호 울타리는 적극적으로 용도에 걸맞은 다양한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 17> 전통 상징과 표현이 혼재된 모습



<그림 18> 투시형 펜스(좌) 방호 울타리(우)

## • 난간

마지막으로 난간은 창문에 붙은 난간과 계단에 붙은 난간 그리고 발코니에 붙은 난간 등을 살펴보았다. 창문에 붙은 난간에서도 전통 상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십장생과 사군자가 주를 이루었고 외부로 노출된 단독 주택의 계단 난간에서는 전통적 난간의 모습을 계승한 듯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발코니의 난간은 주로 얇은 직선과 곡선을 이용해 식물 문양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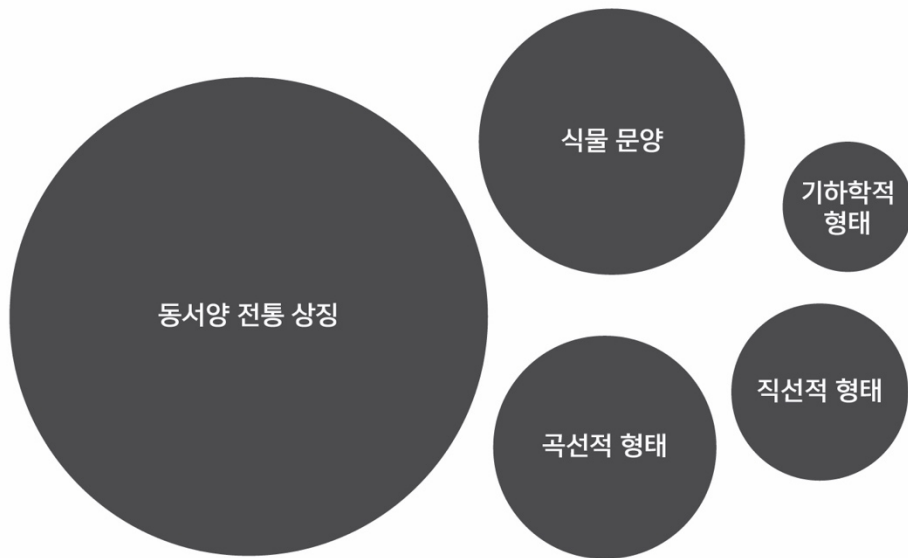
<그림 19> 전통 상징과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난간



<그림 20> 식물 문양을 표현한 난간

#### 4.2.2. 소결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경계물의 상징과 표현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우선 동서양 전통에서 유래한 상징들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식물 형태와 곡선적 표현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와 직선적 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1> 경계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

전통 건축의 흔적이나 곳곳의 전통 상징들을 통해 전통의 명맥을 이으려는 노력이 보이고, 이것이 한국만의 일상적 풍경을 만들어내며, 장식을 향한 일반 대중의 욕구가 드러난다는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만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더욱 다양한 전통 상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군자, 십장생 등에 소재가 한정되어 있고, 동서양의 상징이 맥락 없이 혼재되어 있는 점과 상징의 디자인과 형태가 변형과 발전이 없이 오랜 시간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져 공간의 개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였다. 관찰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전통 상징을 대상으로 하되 그 표현 방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대상을 표현 소재로 제안함으로써 공간 내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여 일상적 풍경을 좀 더 활기차고 다채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전통의 명맥을 이으려는 노력/주제가 한정

e.g. 사군자, 십장생

· 디자인과 표현의 변형 없이 오랜시간 복제

· 선택의 폭이 좁고 공간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음

· 동서양 상징이 맥락없이 혼재된 모습



##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법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 전통적 소재 활용

경계와 관련된 상징 발굴

## 가까운 전통, 지역문화관습 반영

친밀감 ↑, 문화적 메신저 역할

<그림 22> 관찰 내용 정리

## 제5장 사례연구 및 선행연구



## 5.1. 사례연구

### 5.1.1. 지역성의 표출

#### • 싱가포르 문살 풍경

싱가폴 지역의 동네에는 집마다 문살과 창살 무늬가 제각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방법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나 <그림 23>과 같이 장식적인 부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각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각각의 문과 창문이 모여 전체적으로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며 여행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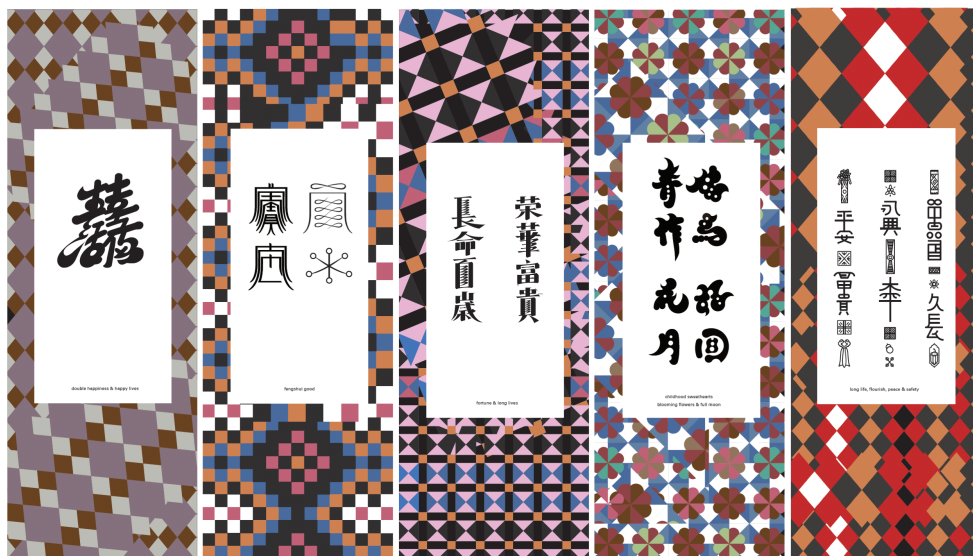


<그림 23> 싱가포르의 문살과 창살

#### • 왕츠위안, 리타이포 차이나

작가는 산시성 지방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 발견한, 집마다 문에 달린 커튼에 주목한다. 이 커튼은 각 가정에서 쓰다 남은 천을 모아 이어 붙인 것

으로 다양한 색상 조합과 패턴 그리고 문양과 문자를 보여준다.<sup>39</sup> 일상적인 풍경에서 발견한 그래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향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중국 현대 도시에서 전통과 현재를 조화시켜 살아가는 현대 중국인의 삶을 표현한다.



<그림 24> 왕츠위안, 리타이포 차이나(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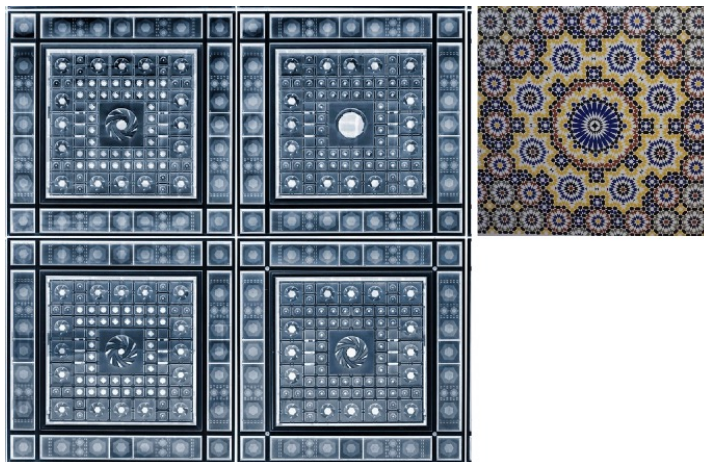
<그림 25> 산시성 마을 풍경

<sup>39</sup>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타이포잔치 2015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안그래픽스, 2015, p.142.

### 5.1.2. 전통적 소재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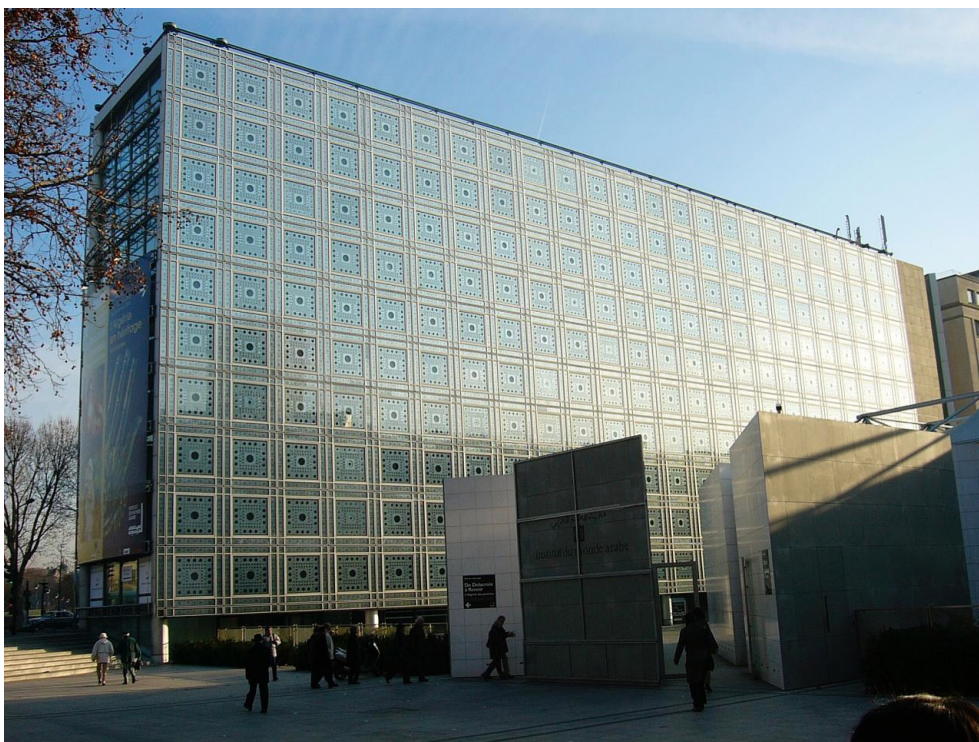
- 장 누벨(Jean Nouvel), 아랍 문화원(Institut du Monde Arabe)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랍 문화원은 프랑스의 건축가 장 누벨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이다. 건물 입면을 장식하는 기하학적 아라베스크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빛을 조절하는 개폐 장치에 의한 조리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아랍국가 출신은 그들만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수하며 프랑스 문화에 융화되지 못해 일종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랍문화원은 아랍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국가 기념비적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야심 차게 건립되었다.<sup>40</sup> 아라베스크 문양의 조리개형 창은 내부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문양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프랑스 문화와 아랍 문화의 소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림 26> 아랍문화원의 조리개와 아라베스크 문양

<sup>40</sup> 한국디자인진흥원, “장 누벨의 아랍문화원”, 2005, <http://bit.ly/2hspWXG>. (2018.01.20)



<그림 27> 아랍문화원 외부

### 5.1.3. 다양한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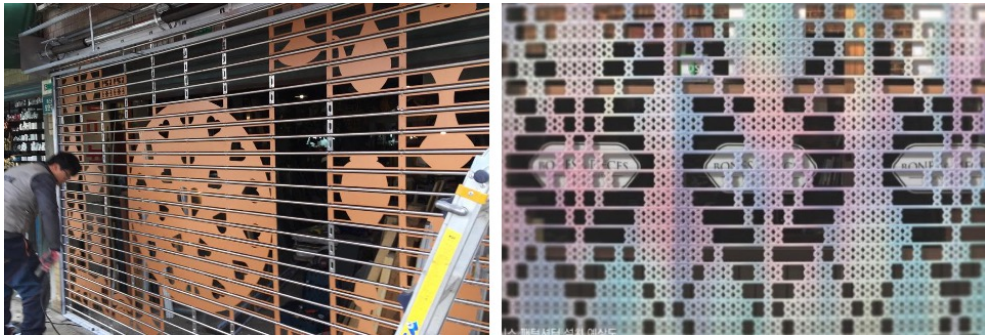
#### 5.1.3.1. 상징의 활용

- 정원연, 장인의 패턴, 장인의 셔터

작가는 문래동 내 철공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로 상가 건물에서 출입구가 있는 입면 전체 혹은 부분을 한 번 더 닫는 용도의 방범용 개폐식 철제 문인 셔터에 주목한다. 사업체의 운영자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연을 통해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티프를 디자인한 뒤 패턴화하여 셔터에 적용했다. 철제 셔터라는 소재 자체가 철공단지라는 문래동의 지역성과 어우러지고, 공간 점유자의 삶을 시각적 요소로 표현해 폐쇄성을 질게 띠는 셔터에 장식함으로써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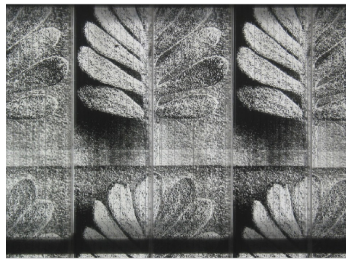


<그림 28> 셔터가 시공된 모습

• 헤르조그 드 뫼롱(Herzog & de Meuron), 리콜라 공장(Ricola Factory)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듀오인 헤르조그 드 뫼롱이 설계한 리콜라 공장의 입면 유리에는 리콜라 사탕의 원료인 허브 잎이 패턴화되어 프린팅되어 있다. 이렇게 입면 유리를 장식하는 패턴은 내부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가능성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관찰자가 입면 자체의 물질성을 잊고 프린팅된 패턴에 주목하게 한다. 이로써 입면의 불투명한 유리를 투과하려던 시선은 프린팅 자체에 머무르게 되어 새로운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sup>41</sup>

<sup>41</sup> 최순섭,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 22(4):p. 179-186.



<그림 29> 리콜라 사탕의 상징인 허브잎



<그림 30> 리콜라 공장 내부

### 5.1.3.2.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입구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인 대영도서관의 대문은 육중한 석조 구조물의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거대한 철판을 절단하여 BRITISH LIBRARY라는 글자가 칸칸이 이어지도록 구성된 대영박물관의 대문은 문짝의 기능을 가진 아래층의 글자는 볼드체로 이루어져 있어 단단하게 문의 실용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도서관으로 향하는 첫 관문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낸다. 이 글자는 상승할수록 라이트 체로 얇아져 중량감을 낮추어 시각적 균형을 이룬다



<그림 31> 대영도서관 입구와 대문 상세



• 르네 크넵(Rene Knip)

네덜란드 출신의 르네 크넵은 자신에 의하면 2와 1/2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과 입체의 갈림길에 선 그래픽 디자인을 탐구한다. 주 관심사는 서체 디자인과 캘리그래피이고 그의 작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이니지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글꼴을 함께 디자인한다. 그의 사이니지 작업은 다양한 글꼴 디자인과 함께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경계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적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 역시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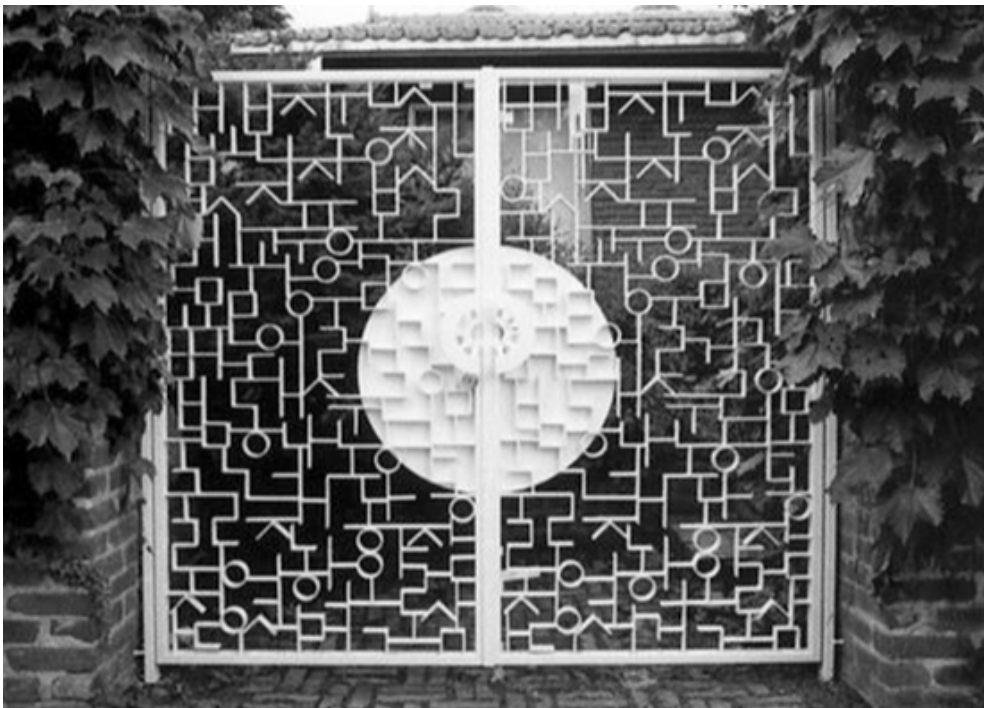
<그림 32> Fenceless(좌), Dordrecht Tunnel(우)



• 안상수, 한글대문

작가의 삶의 공간으로 향하는 첫 입구인 대문을 한글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새겼다.

‘문을 들락거리면 복의 물결이 바다처럼 밀려온다’라는 내용의 시이지만 대문에서는 쉽게 읽히지 않는데 작가의 의도에 의하면 일부러 가독성이 떨어지도록 디자인하여 읽는 글자가 아닌 보는 글자, 감정과 정서가 담긴 문자로서의 한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한글이라는 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관심사와 사상을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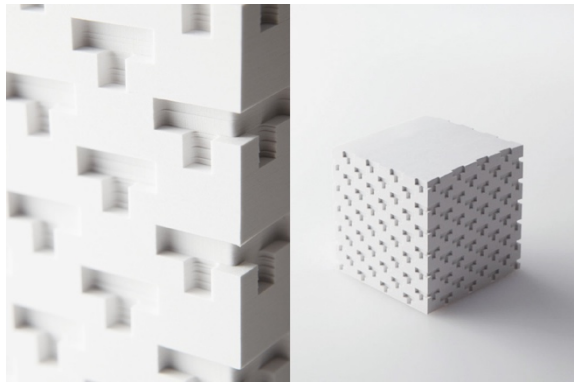


<그림 33> 한글대문

### 5.1.3.3. 확장성을 가진 통합적 아이덴티티의 표현

- 하라 켄야(Hara Kenya)

하라 켄야의 작업에는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확장되어 공간의 아이덴티티로 드러나면서 그래픽 디자인과 건축이 하나의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 작업인 다이칸야마 t-site의 츠타야 서점은 서점의 로고인 T자를 패턴화하여 건물 입면에 드러냄으로써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드러냈다. 2000년 작업인 마츠야 긴자(Matsuya Ginza) 백화점 디자인도 도트 패턴이 건물 외벽부터 포장지에 종이백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패턴이 들어갔고 백화점의 전체 아이덴티티를 일체화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소개한 하라 켄야의 작업이 그래픽 요소가 확장되어 건물에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건축적 요소가 확장되어 그래픽적 요소로 표현된 사례도 있다. 중국 청두에 있는 Zhi Art Museum은 건축가 켄고 쿠마(Kengo Kuma)의 타일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그래픽적인 패턴이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되어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성질을 갖는 지식(知)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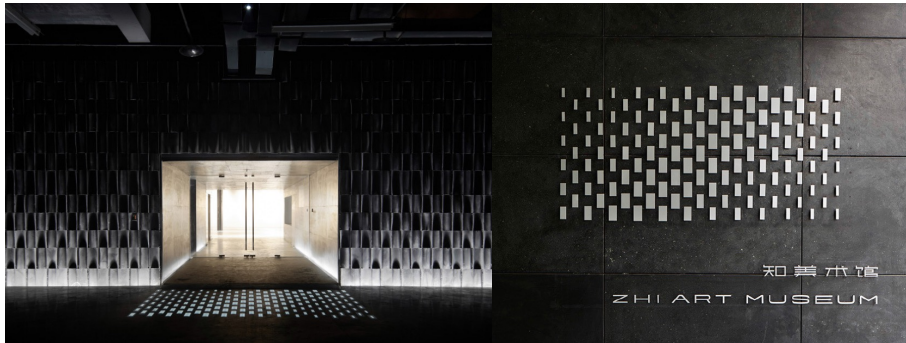


<그림 34> 다이칸야마 츠타야의 외부, 어플리케이션



<그림 35> 마츠야 긴자 백화점 작업





<그림 36> Zhi Art Museum 건물 외부와 아이덴티티

## 5.2. 선행연구

### 5.2.1. 퇴적된 도시 공간을 향한 관심

우리 도시개발정책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커커이 쌓인 퇴적된 도시 공간은 재개발해야 하는, 뉴타운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고 깔끔한 거리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퇴적된 도시 공간으로 일컫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쌓인 시간의 흔적과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간판 텍스트의 갈라짐과 시트지의 떨어진 흔적들은 수많은 삶과 오래된 시간이 만들어낸 타이포그래피인 것이다.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퇴적된 도시 공간을 향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뉴타운 재개발 지구 중 아현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서 글자와 패턴을 채집했고 그중에서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선택하여 패턴과 함께 배치하여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그림 37> 퇴적된 도시공간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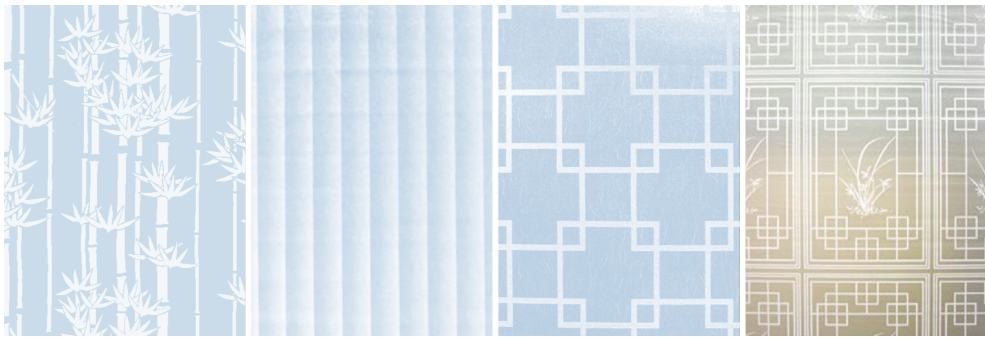


<그림 38> 숨씨, 2016



### 5.2.2. 일상적 풍경 속 상징 채집

도시 주택가의 창문을 장식하는 다양한 글라스 시트를 향한 관심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글라스 시트란 디자인 시트지의 일종으로 반투명한 소재에 여러 가지 상징이나 패턴으로 장식된 유리창 전용 시트를 일컫는다. 장식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부수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빛의 유입을 허용하거나, 사생활 보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sup>42</sup>.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글라스 시트 문화는 유독 한국의 도시민적 거리풍경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림 39> 글라스 시트의 예

연구자는 한국 일상적 주거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이지만 지저분하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 취급되며 점차 사라져가는 글라스 시트 문화를 채집하고 아카이빙했다. 골목 풍경이 잘 누적되어있다고 판단한 아현동, 영등포동, 문래동, 익선동, 홍제동, 봉천동의 여섯 군데 동네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65개의 글라스 시트의 사용 양태를 채집하여 아카이빙했다. 주로

<sup>42</sup> 조한주, “인테리어 시트지의 현황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5,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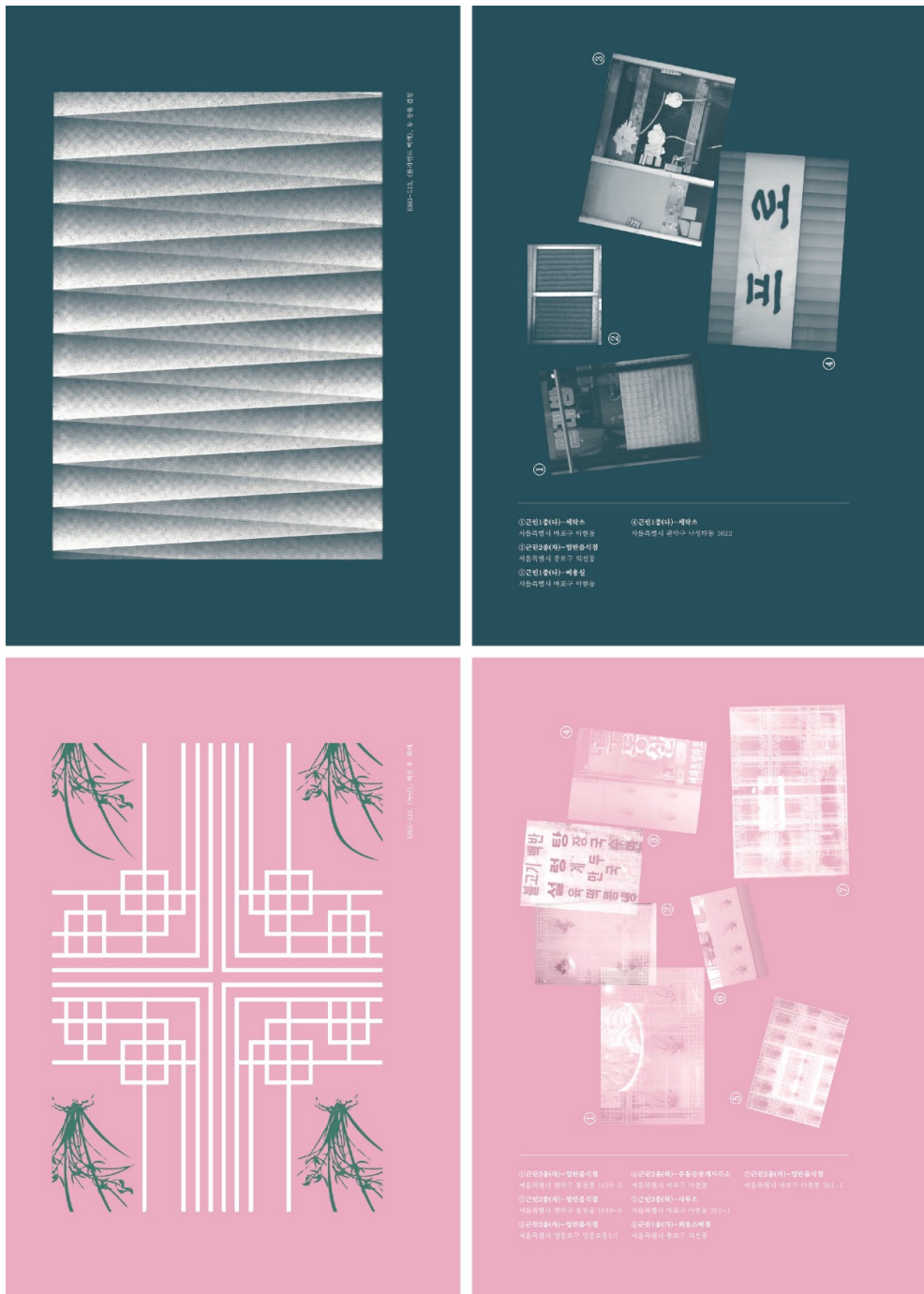
쓰이는 장식적 요소로는 기하학적 패턴과 완자창 문양, 사군자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패턴들이 텍스트와 결합하여 확장된 간판 혹은 메뉴판의 모습을 보이거나 패턴이 분해되고 다시 다른 패턴과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기도 하는 듯 다양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유리나 한지를 본뜬 듯한 연한 하늘색과 연한 회색이 주를 이루었고 전통 창호에서 유래한 패턴이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근대 건축을 태동하게 했던 유리라는 재료가 우리 일반적 현실에서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전통 한지 창호가 주는 특유의 분위기를 대중적 방법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sup>43</sup> 이 선행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으나 사례의 기록으로 멈춘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림 40> 서울의 유리 풍경(2017) 작업 상세1

<sup>43</sup> 김귀원, “프랑스 문화, 지역학 : 구한말 프랑스 문헌에 나타난 한국의 주거문화”, 『프랑스 문화연구』, 2010, p.134.



<그림 41> 서울의 유리 풍경(2017) 작업 상세2



## 제6장 최종 작품 연구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경계물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동서양 경계물의 상징과 표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상 속 다양한 경계물을 관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다양한 시각 상징을 활용하여 각 경계물의 특성에 맞는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공간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그래픽을 제안하고자 한다.

4장의 소결을 바탕으로 일상적 풍경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었으나 고착화된 디자인을 보여줬던 전통적 소재를 새롭게 표현하고, 다소 소극적이었던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더하여 어떤 대상을 선정해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재료의 특성과 제작 기법을 표현에 반영하고, 다시 이것을 인쇄물로 확장하거나 혹은 인쇄물을 경계물의 표현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6.1. 전통소재의 새로운 표현 방법 연구

### • 시각화 대상

대중의 선호도가 높았던 전통적 소재로는 십장생문과 사군자, 그리고 각종 길상 문자 등이 있다. 그 중 십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상징하는 사물로 해, 산, 물,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 복숭아 등의 열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해당된다. 십장생에서 십(十)자의 의미는 단순히 십장생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동·서를 의미하고 ‘|’자는 남·북을 의미하여 사방 중앙이 모두 갖춰진 완전함을 상징하여 영원함과 상서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이처럼 십장생은 여러 가지 길한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는 시각 상징이지만 경계물에 표현된 십장생은 주로 주조<sup>45</sup> 기법으로 제작되어 비슷한 디자인이 반복적으로 복제되어왔다.



<그림 43> 십장생도

<sup>44</sup> 한국콘텐츠진흥원, “십장생”,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7&cp\\_code=cp0322&index\\_id=cp03220542&content\\_id=cp032205420001&print=Y](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7&cp_code=cp0322&index_id=cp03220542&content_id=cp032205420001&print=Y). (2018.01.20)

<sup>45</sup> 주조(鑄造)는 재료(주로 철, 알루미늄 합금, 구리, 황동 등의 금속)를 용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액체로 만들어 형(型)에 부어 굳히는 가공 방법이다. 위키피디아, “주조”,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A1%B0>. (2018.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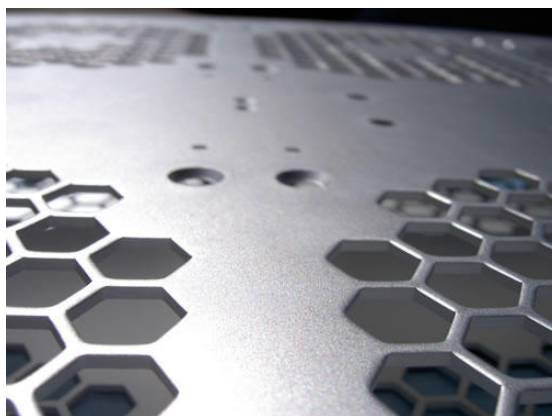




<그림 44> 주조 기법으로 제작된 십장생문 경계물의 예시

#### •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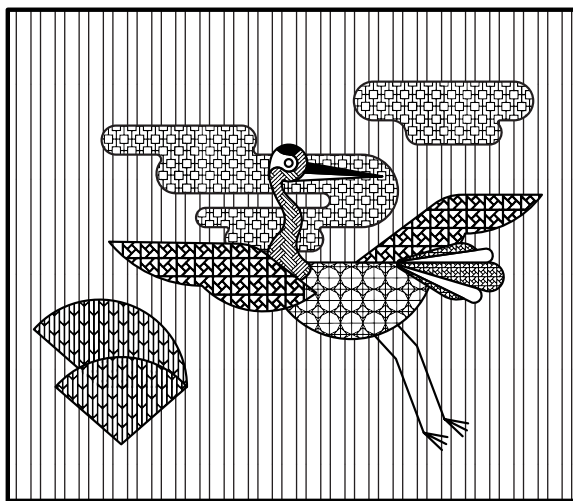
십장생의 표현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동일한 제작 기법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할 제작 기법으로 타공 기법을 선정하였다. 타공 기법으로 표현된 경계물은 단절과 동시에 소통을 의미하는 경계물의 특성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재료는 철판으로 가정하였고 철판을 타공했을때 날카로우면서도 정확히 작도되어 잘린 느낌을 살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다.



<그림 45> 타공 기법의 예

• 시각화 과정

<그림 46>의 처음 스케치에서는 색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계물의 특성을 패턴으로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패턴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짐과 동시에 이 복잡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케일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패턴 표현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이 외에도 너무 가는 선은 구현이 어려우므로 모든 선은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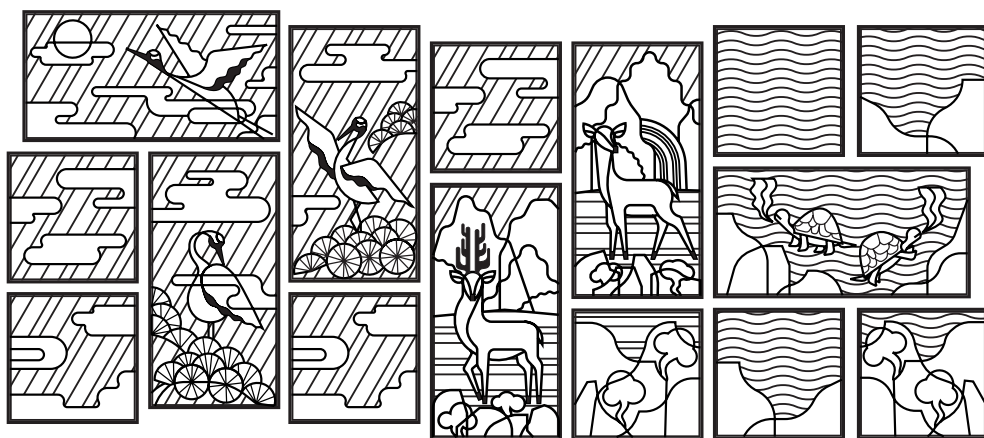
<그림 46> 십장생 스케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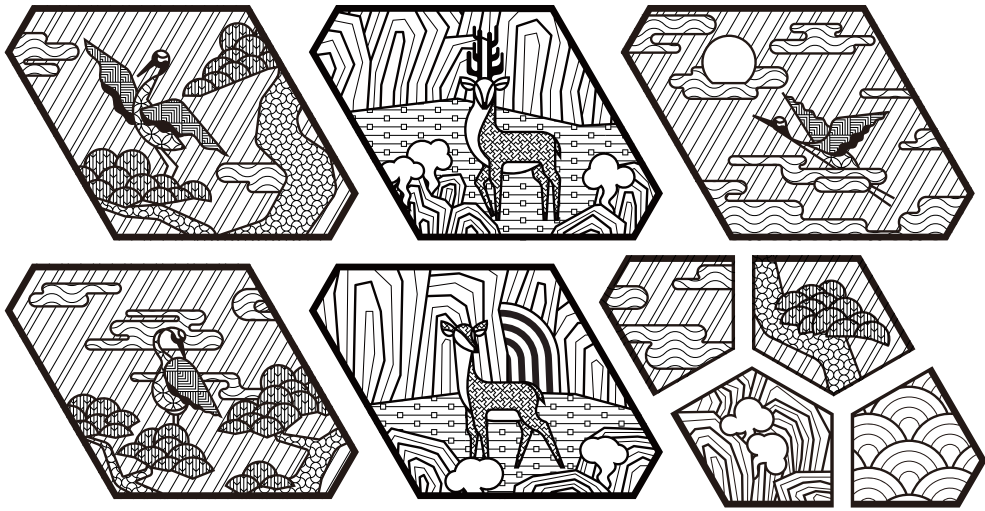


<그림 47> 십장생 스케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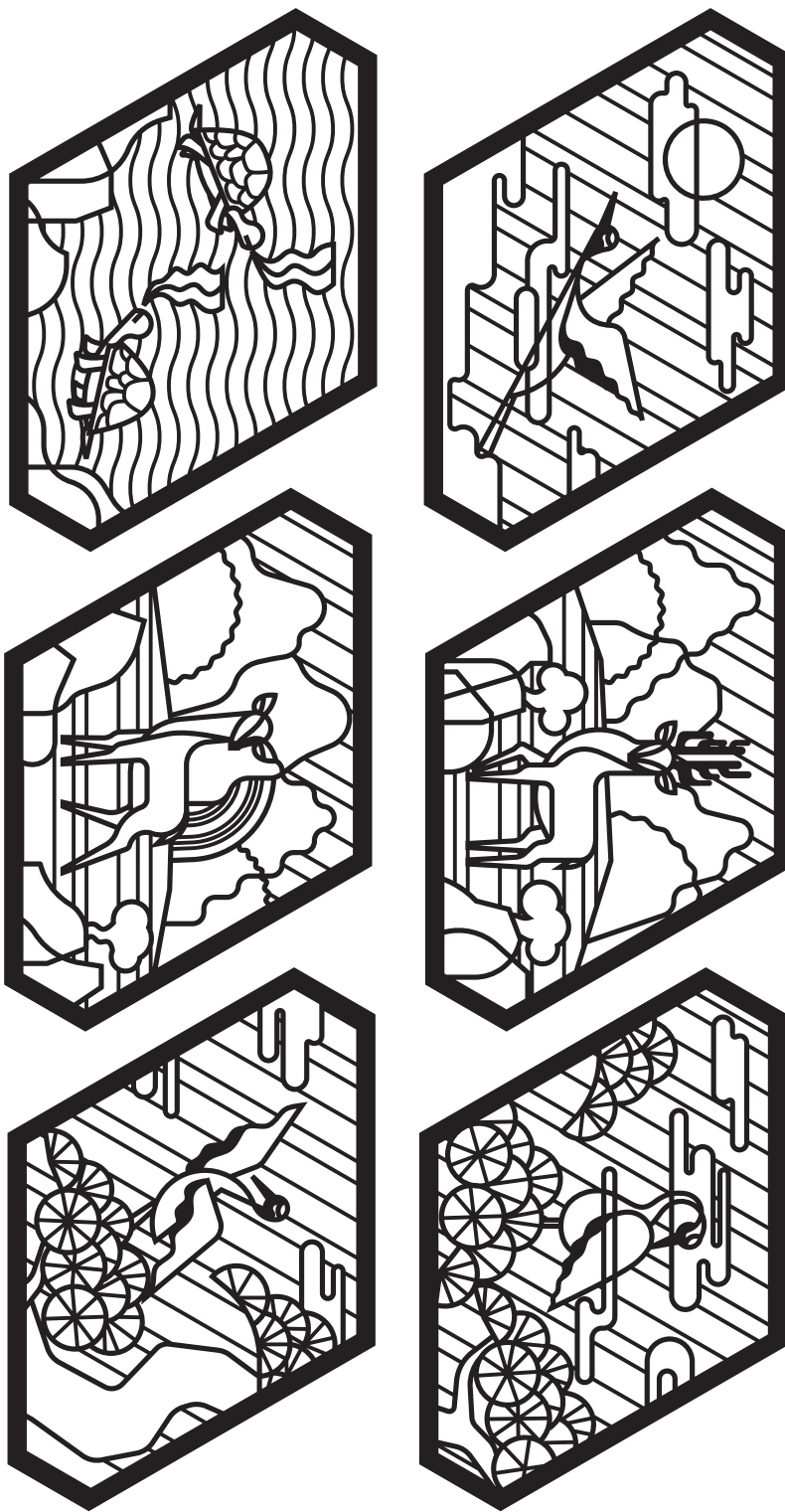
공간에 맞는 확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닛을 정하고 각각의 유닛을 공간과 취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유닛은 시각적인 재미를 주지만 조각이 많아지고 조립이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육각 유닛으로 통일하여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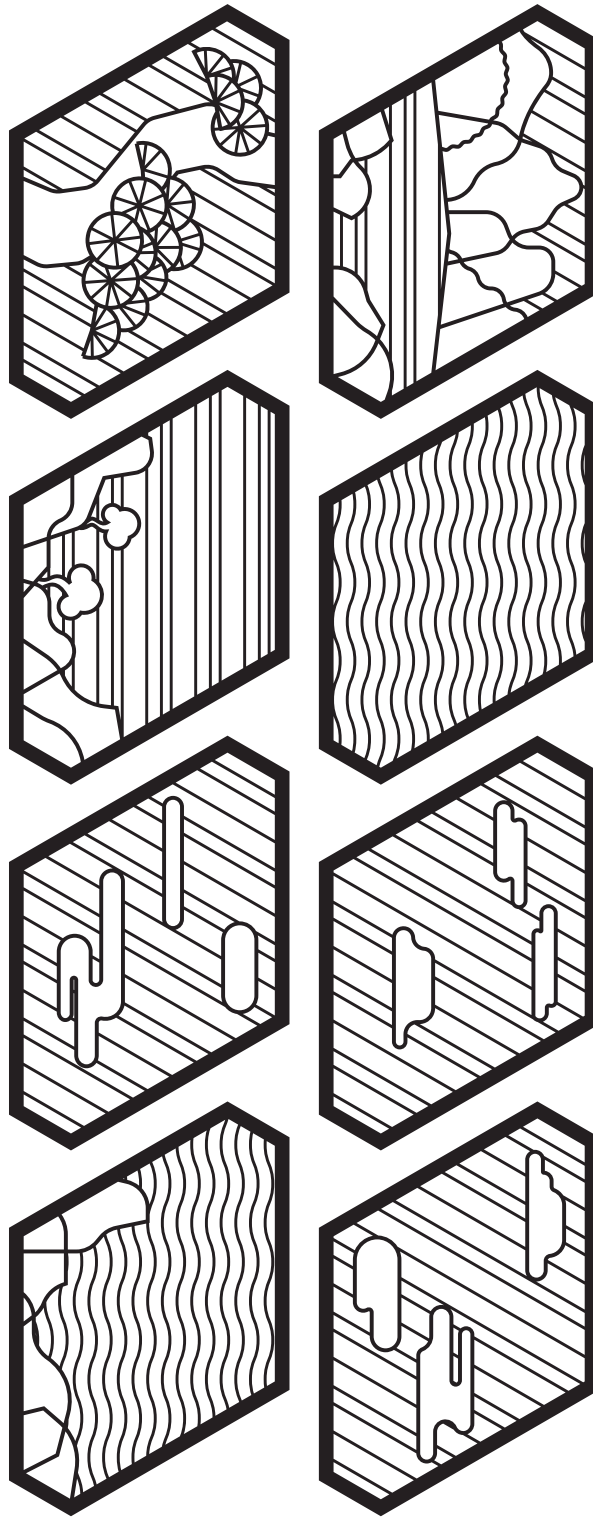
<그림 48> 십장생 스케치3



<그림 49> 십장생 스케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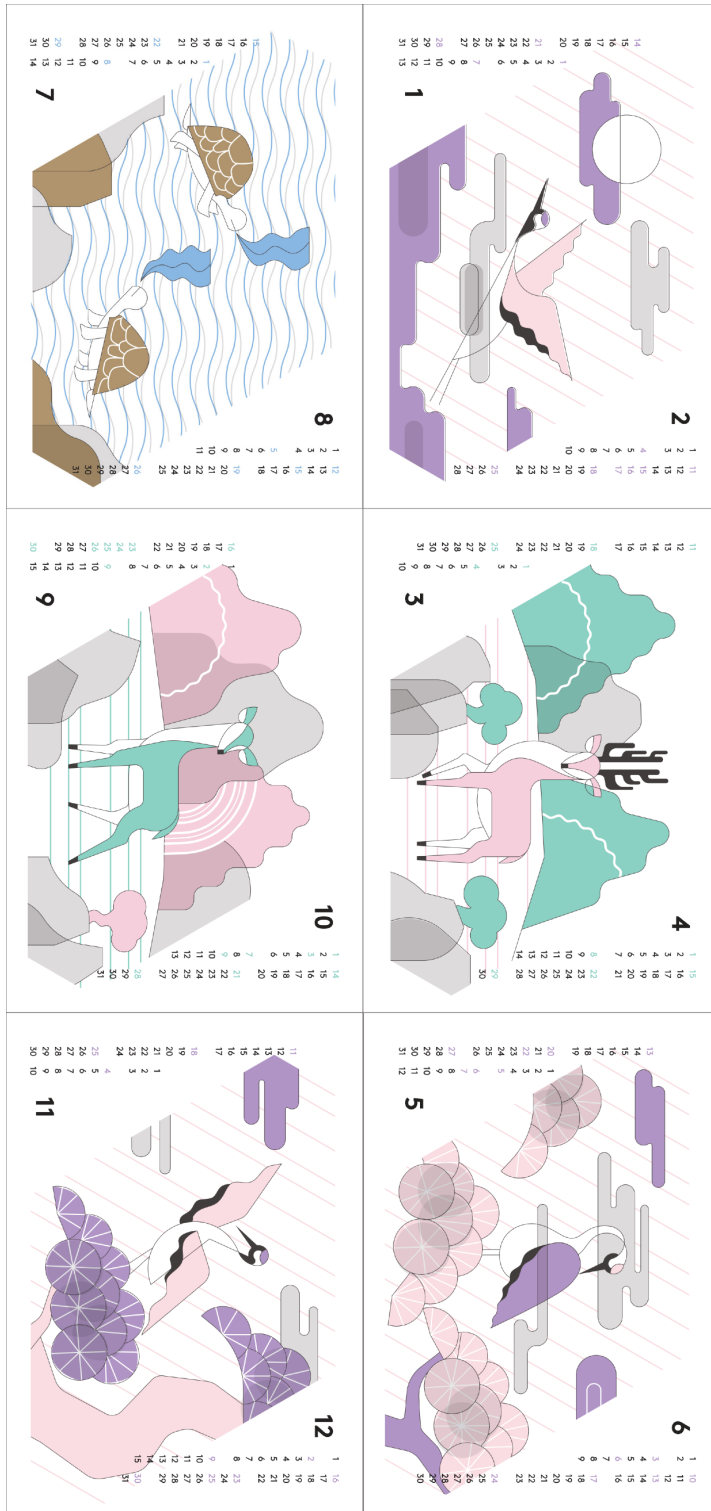


<그림 50> 심장생 그래픽 메인 유닛



<그림 51> 심장생 그래픽 보조 유닛

십장생 경계물이 공간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했을 때, 철판, 타공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느낌을 중화하여 표현된 인쇄물이 놓인다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인쇄 오차가 크고, 잉크의 분포가 달라져 얼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어딘가 투박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리소그래피 기법으로 인쇄물을 표현하였다.



<그림 52> 리소그래피 시안

## 6.2. 한글 타이포그래피

### • 시각화 대상

한글은 문자라는 특성상 다양한 메시지를 함의할 수 있으면서 한자보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경계물에서는 그 사용이 흔하지 않았다. 경계물의 표현 소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53> 입춘방 예 (출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글귀는 경계물과 관련된 글귀인 입춘방 중에서 몇 문장을 선정하였다. 입춘방이란 궁에서 문신들이 지어 올린 신년축시를 선정하여 기둥과 난간에 붙였던 것에 유래하여 입춘날 대문에 걸한 내용이나 교육적

인 내용 혹은 액운을 쫓는 내용이 담긴 글귀를 붙여놓는 풍속으로, 전통적으로 대문을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길흉화복을 부르거나 막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sup>46</sup>했음을 알 수 있다. 입춘방 중에서도 봄이라는 특정한 계절을 암시하지 않아 계절에 관련 없이 두루 사용될 수 있는 문구인 ‘소지 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온다.)’를 선택해 표현하고자 했다.

추가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자 사자성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과 경계물을 표현하는 문장을 만들어 시각화하였다.

#### • 표현 방법



<그림 54> 경복궁과 운현궁의 꽃담

<sup>46</sup> 조전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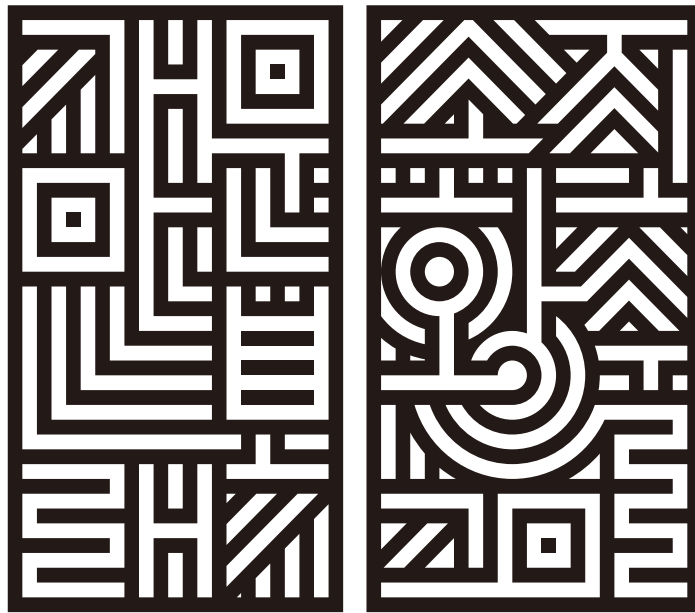
길상문자인 쌍희(囍)자나 복(福)자를 새긴 전통건축의 꽃담 표현 방법을 참고하여 요철이 드러나도록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고자 했다. 요철이 드러나는 표현은 주조 기법이나 벽돌 쌓기 혹은 벽돌 자체에 표현되는 등 경계물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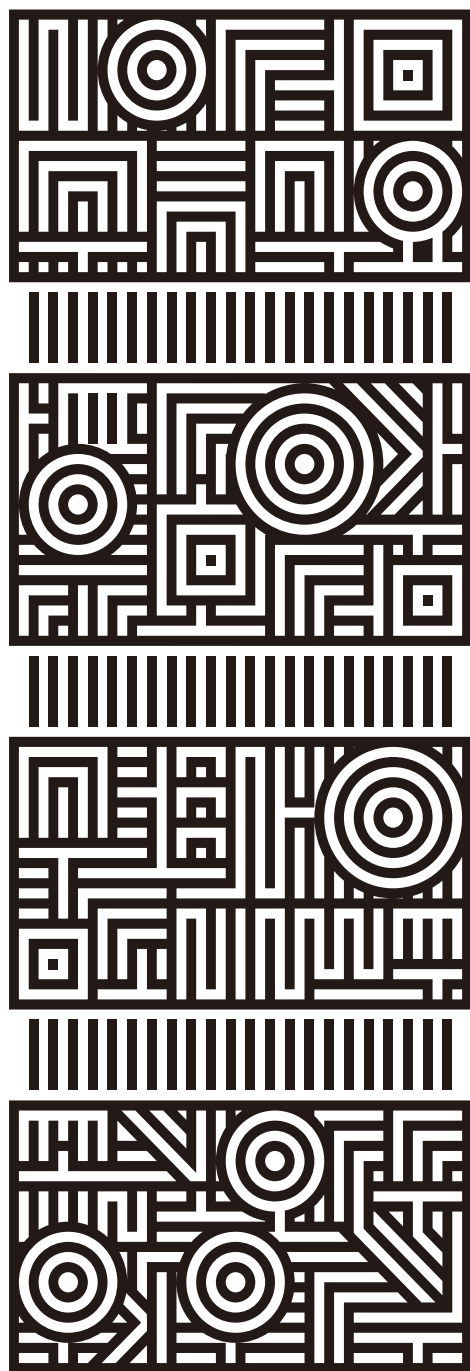
<그림 55> 요철 표현의 예

#### • 시각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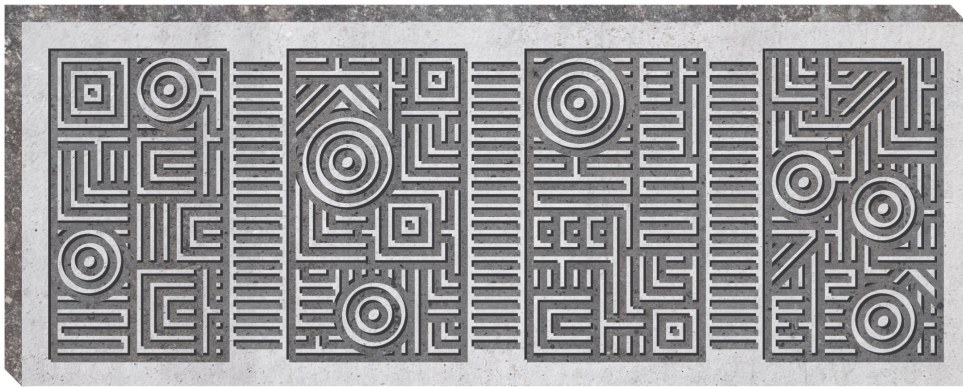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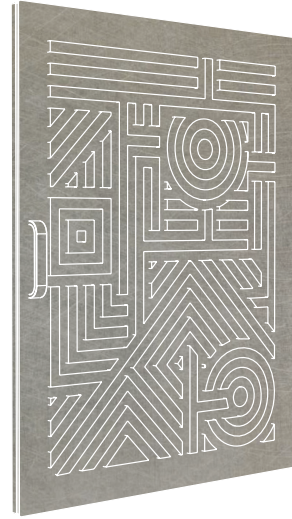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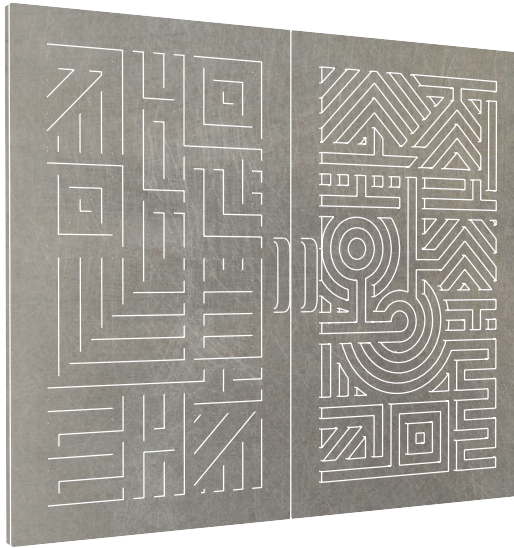
꽃담의 표현 기법을 가져와 미로 같은 형태로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짜임새 있는 조형을 가지고 경계물과 하나 되어 표현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56> 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1



<그림 57> 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2



<그림 58> 한글 타이포그래피 경계물 예: 주조 대문/벽

이를 평면 그래픽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동판에 압력을 가해 종이에 요철을 드러내는 인쇄 후가공 기법인 형압을 이용하여 시각화하고자 했다.



<그림 59> 형압 기법의 원리



<그림 60> 형압 기법으로 표현한 예

### 6.3. 추상적, 기하학적 표현

#### • 시각화 대상

마지막으로 표현 소재를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의 풍경을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앞서 다루지 않은 경계물인 창문에 특정하여 창문 난간과 시트지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을 연구하고자 했다. 특히, 정형화된 풍경을 만들어내는 아파트의 창문은 서울의 도시풍경을 흥미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림 61> 아파트의 창문

창문의 많은 기능 중 풍경을 감상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울의 특징적인 풍경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고 아파트가 겹겹이 중첩된 풍경, 남산과 고층 빌딩 그리고 한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선택하여 시각화하고자 했다.





<그림 62> 서울의 풍경



### •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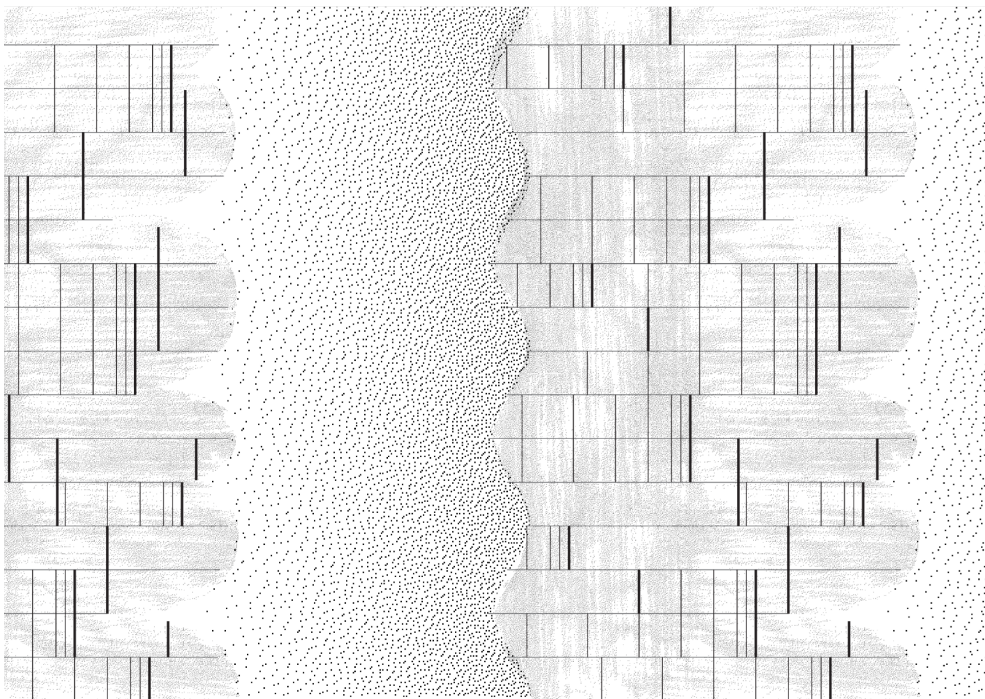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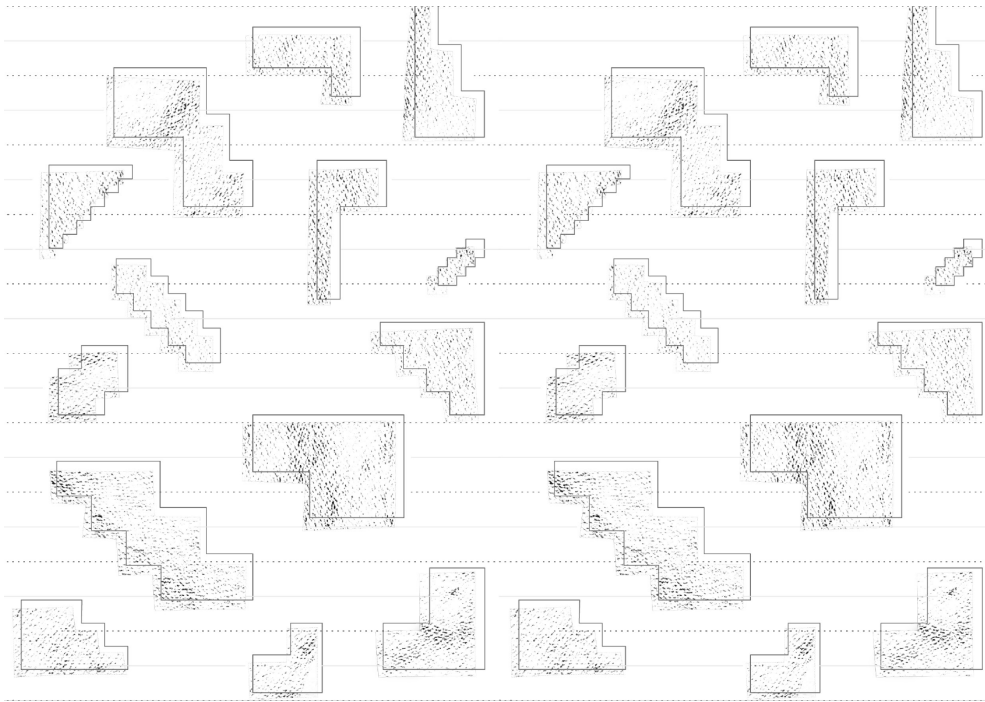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빛을 유입하기 위한 글라스 시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이용해 은은하게 표현했다. 반면 난간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로선을 조밀하게 배치하면서 표현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 • 시각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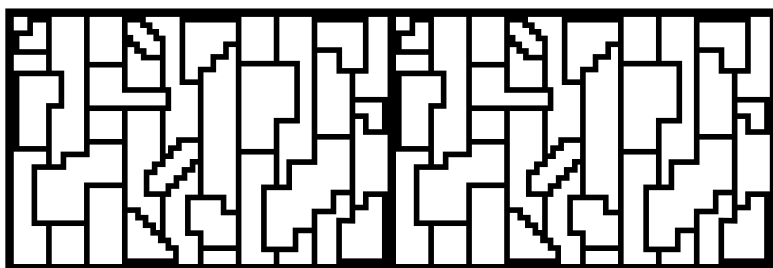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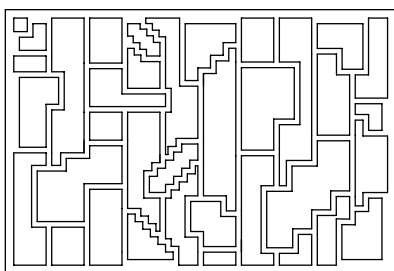
먼저 아파트가 중첩되면서 드러나는 계단식 블록 형태의 도형과 세로선을 가져와 아파트의 중첩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한강, 남산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과 수많은 고층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독특한 풍경에서 직선과 곡선을 추출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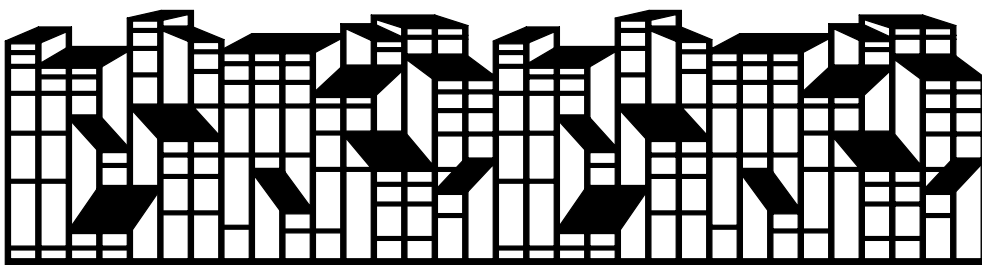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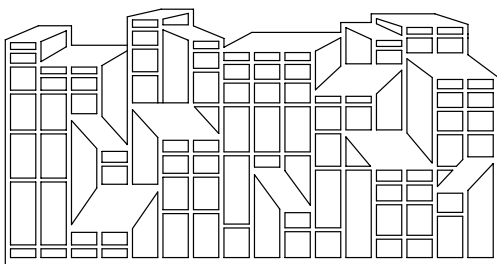
<그림 63> 글라스 시트 스케치



<그림 64> 글라스 시트 최종 시안-아파트 중첩(좌), 산과 빌딩숲 그리고 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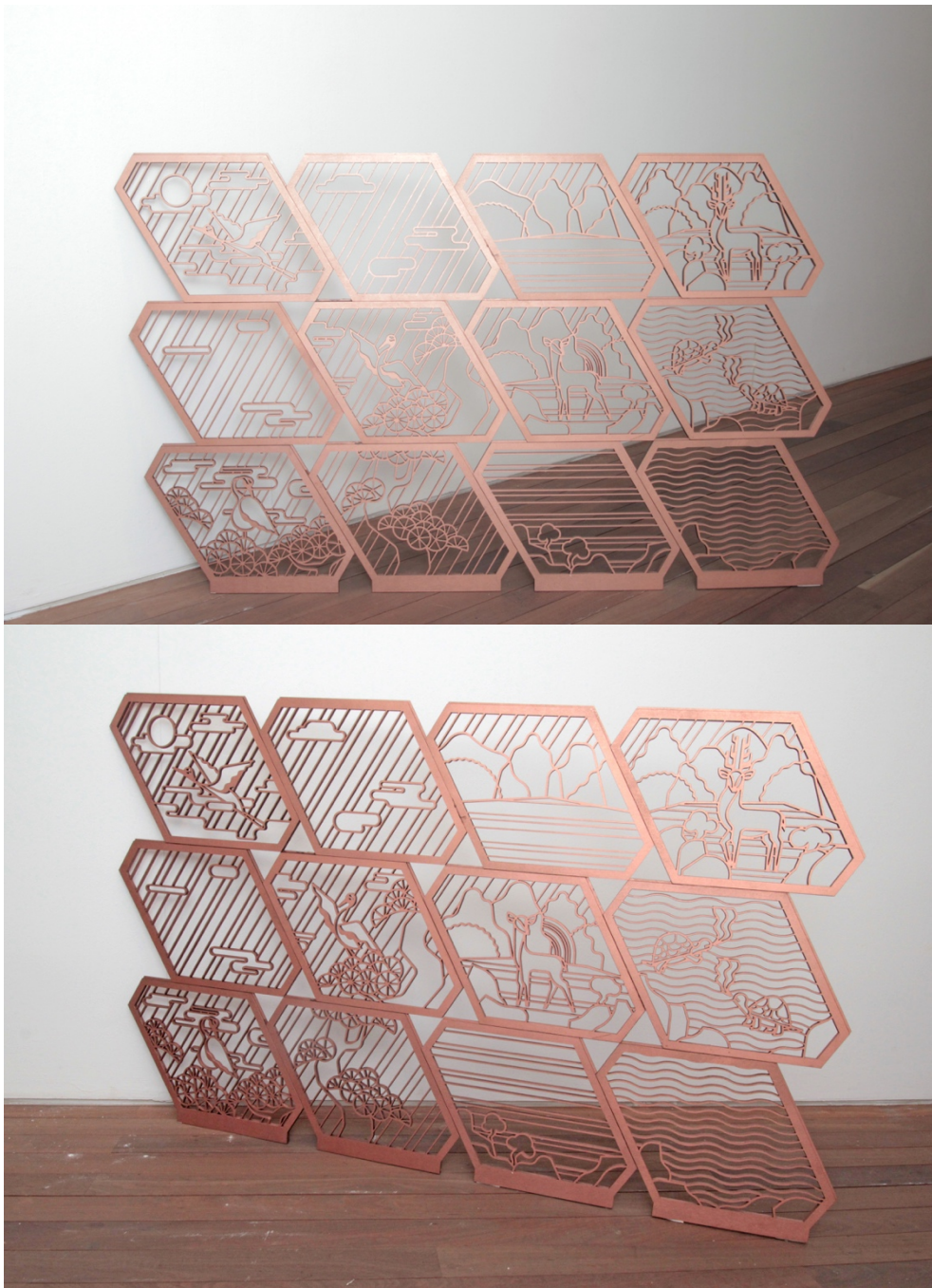


<그림 65> 아파트 중첩 난간을 위한 그래픽



<그림 66> 빌딩숲 난간을 위한 그래픽

#### 6.4. 최종결과물



<그림 67> 심장생 울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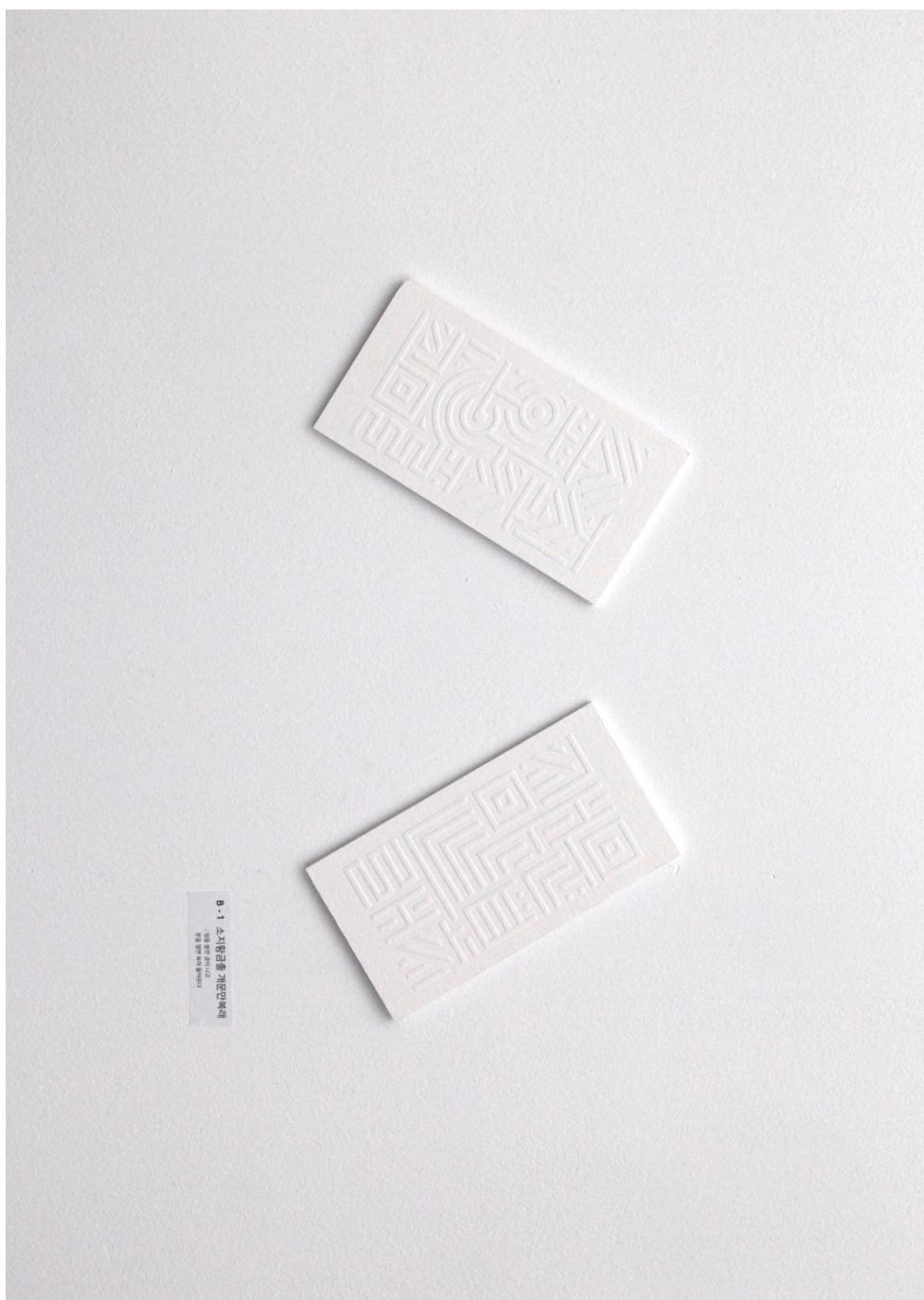


<그림 68> 심장생 울타리의 평면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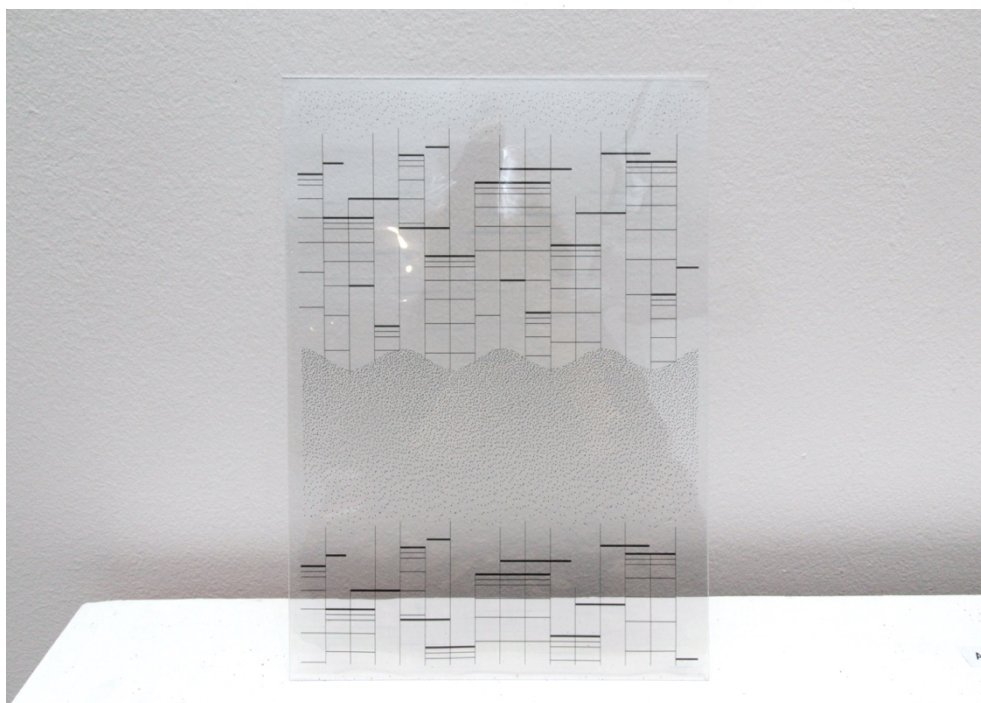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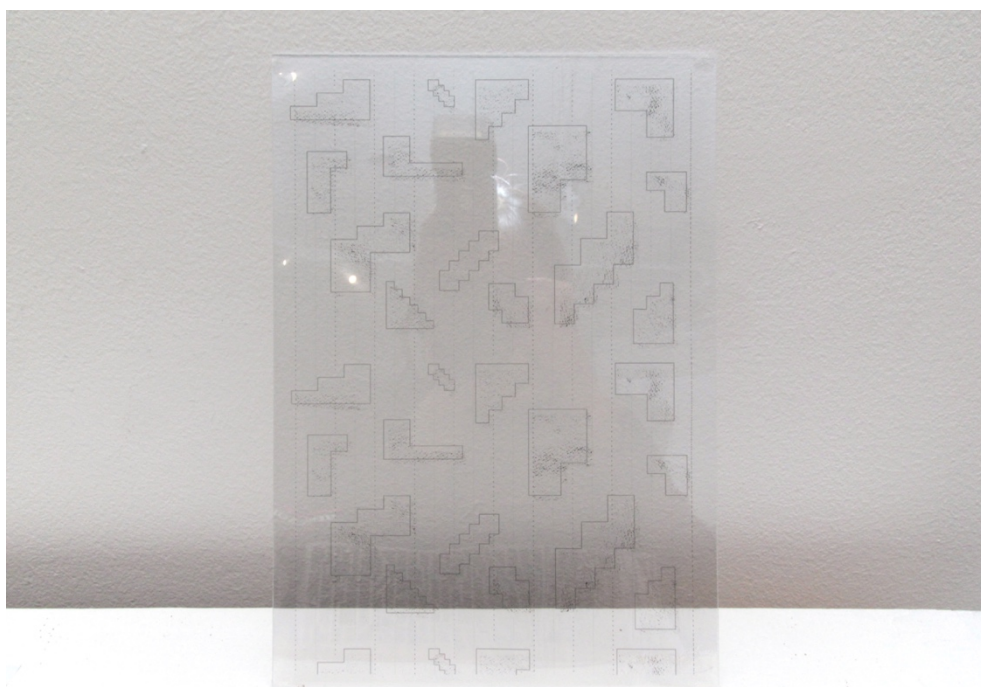
<그림 69>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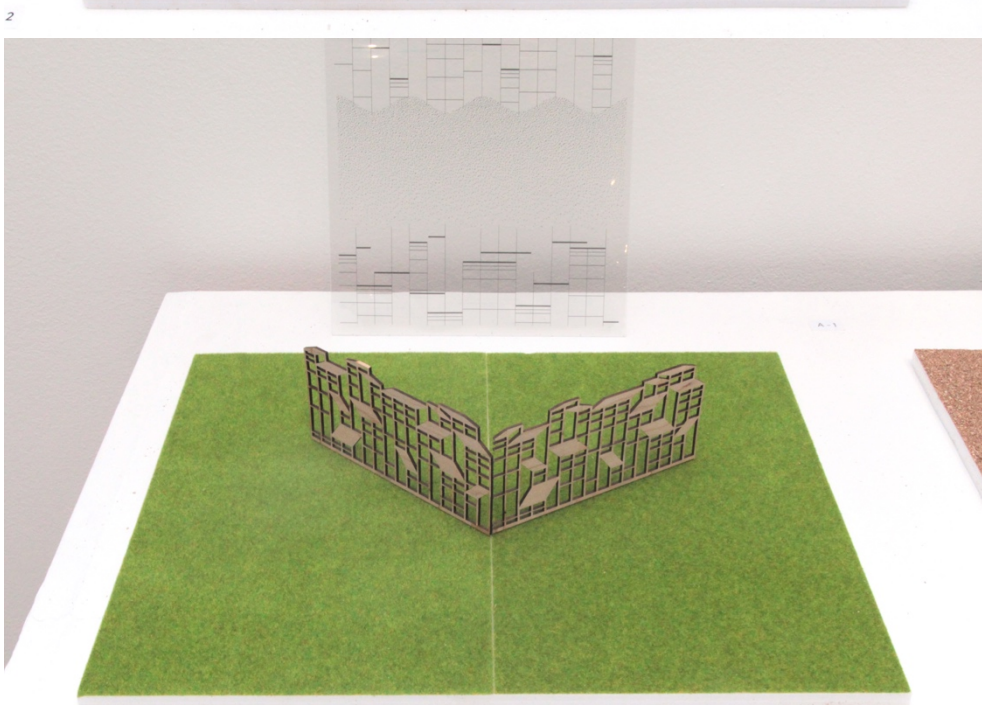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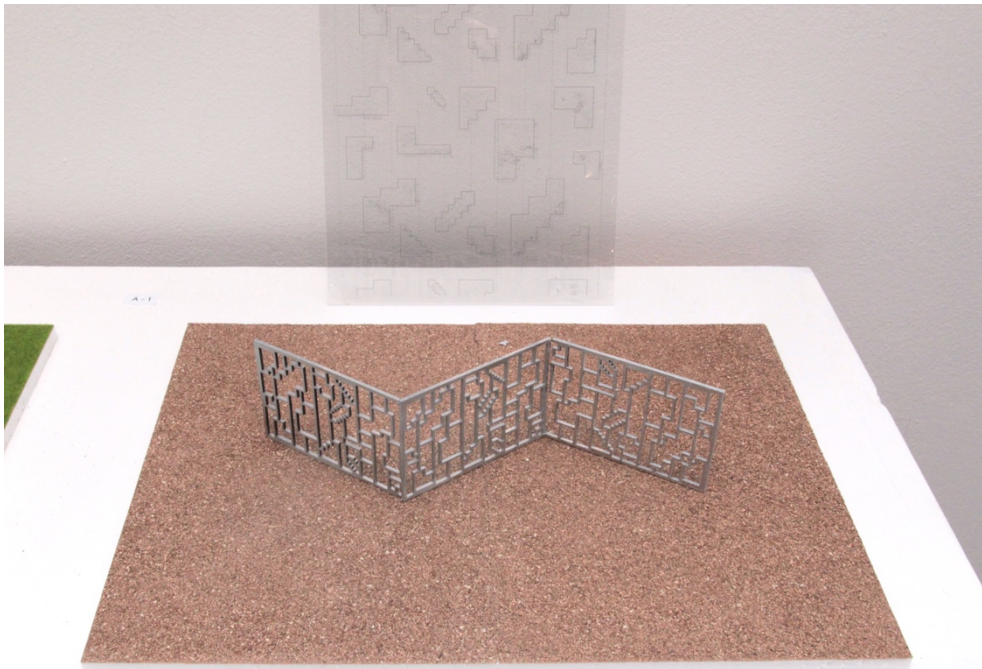


<그림 70>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형압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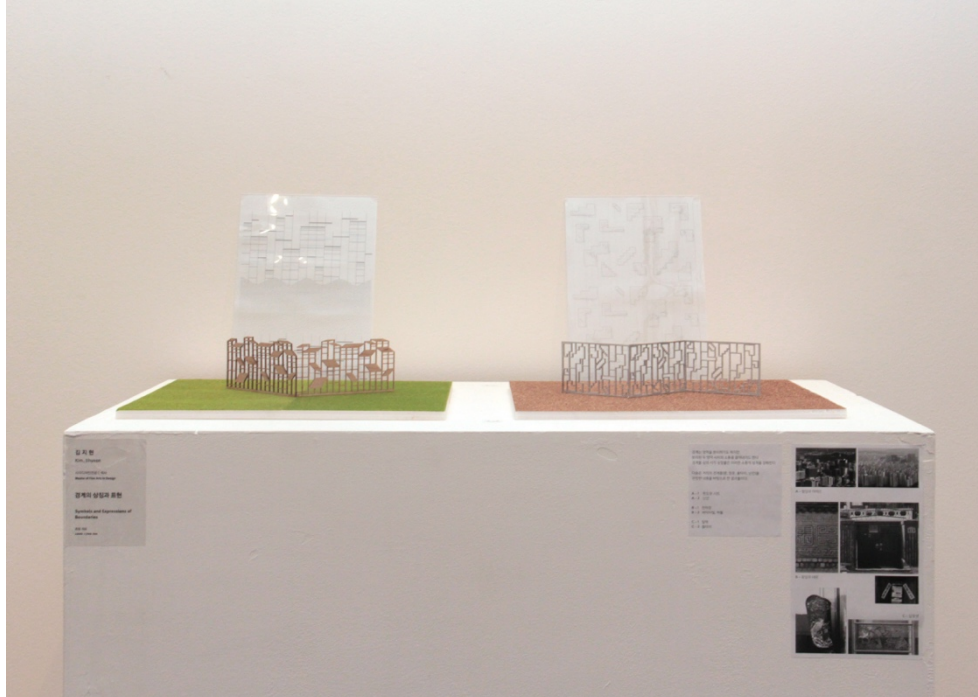
<그림 71> 도시 풍경을 담은 글라스 시트



<그림 72> 도시 풍경을 담은 난간

## 제7장 결론





<그림 73> 전시 설치 모습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경계물이 내부와 외부로 단절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로 소통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상징이 경계물의 소통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대중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상적 풍경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객체화가 두드러지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계는 단절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내부와 외부, 개인과 개인, 나아가 지역과 지역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고착화되고 반복된 표현과 한정된 소재로 인해 경계물 상의 상징이 지닌 메시지가 단절되어 단순한 장식적 요소로만 사용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경계물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상징을 새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내외부의 소통을 활발히 하도록 했다.

좀 더 적극적인 3차원 입체 표현을 구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표현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입체와 평면 표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원안을 제안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시각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과 그래픽 사이에서 확장성을 가진 통합적 표현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 다양한 공간 구성 요소를 연구하여 공간과 그래픽에 통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의 디자인』, 김종균, 안그라픽스, 2013.
-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조전환, 주택문화사, 2008.
- 『한국 디자인의 문명과 야망』, 최범, 안그라픽스, 2016.
- 『진짜공간』, 홍윤주, 프로파간다, 2017.
- 『타이포잔치 2015 :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그라픽스, 2015.
- 『경계의 형태』, 保坂陽一郎, 진경돈 역, 집문사, 1991.
- 『Elements of Architecture at the 2014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Koolhaas, Rem, et al., Marsilio, 2014.
-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김미령, 숙명여자대학교, 1996.
- “도시공간에서의 실천적 일상개념 연구”, 김민지, 국민대학교, 2012.
- “門의 개념을 주제로 한 도제 실내분수 제작 연구”, 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1990.
- “금속난간 장식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김종식, 조선대학교, 2000, p.4.
- “건축디자인 요소로서 창에 의한 공간연출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김현진, 이화여자대학교, 1996,
- “陶板을 利用한 門裝飾開發에 關한 研究”, 백중렬, 단국대학교, 1996.
- “일상(日常)에서 조우(遭遇)하는 사물들을 통한 디자인 특성의 발견과 적용”,

심지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11.

“한국 전통담과 그 현대적 재현에 관한 연구”, 이윤정, 서울시립대학교,  
2005.

“조선후기 전통가옥 담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임도열, 전남대학교, 2013,  
p.4.

“다가구주택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임희준, 서울시립대학교,  
2014.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장영창, 목원대학  
교, 2008.

“소규모 상업공간에서의 계단에 관한 연구”. 장운선, 수원대학교, 1998, p.12.

“Louis I. Kahn 주택작품의 경계공간에 의한 영역 구성에 관한 연구”, 조은  
오, 서울대학교, 2000.

“인테리어 시트지의 현황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조한주, 건국대학교,  
2015, p.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국토 해양부, 2012.

“프랑스 문화, 지역학 : 구한말 프랑스 문헌에 나타난 한국의 주거문화”, 김  
귀원, 『프랑스 문화연구』, 2010.

“동서양 종교건축 전통장의 특성 비교연구”, 이현수 외, 『디자인융복합연  
구』, 2012 Vol.11, No.5.

“한국 디자인역사 연구에 있어 일상사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연구”, 김영  
찬, 장호현,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09.



“경계의 개념으로 본 현대건축의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정순목, 황덕원, 2005.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최순섭,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

“[승효상의 ‘我記宅處’] 코르도바 골목길엔 시간의 윤기가 흐른다”, 승효상, 중앙일보, 2011.02.26.

“‘창문의 기능과 역할’ .. 동/남쪽은 크게”, 정광영, 한국경제, 1996.12.27.

생활건축 진짜공간

<http://jinzaspace.com/?p=6750>

한국디자인진흥원-KIDP보고서

<http://www.designdb.com/?menuno=676>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콘텐츠닷컴

<https://www.culturecontent.com/main.do>

하라켄야 디자인연구소

<https://www.ndc.co.jp/hara/en/>

Atelier René Knip

<http://www.atelierreneknip.nl/>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s and  
Expressions in Everyday Scenery of  
Modern Society

–Focused on Visual Symbols and Patterns Used in  
Architectural Boundaries

Kim. Ji Hyeon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dern city show splendid landscapes ba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s from the accumulation of capital, but individuals inside the

urban space are easily alienated and isolated to society. As a remedy to overcome the phenomenon of objectified individual and regain personal independence and creativity, everyday sceneries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periphery is attracting attention. Usual landscapes such as alleys and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for a while without attention, although it is a place where life takes pla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powerful factor that infuses the urban scenery with peculiarity, identity and vitality.

This study will be processed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from observing interested daily landscapes. Research of symbols and expressions will be made in the boundaries of urban spaces that we routinely encounter such as doors, windows, fences and ramparts, railings, balustrades, etc. Boundary has dual characteristics that disconnection areas, and at the same time elicit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The various symbols adorned on the surface of the boundary enhances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nd contribute to the disconnected internal and external or spatial and human communications.

The origins of symbols that is embodied in urban space varies from the symbols based on tradition to signs influenced by western civilization. Although these figures are replicated without meaning, when traced back beyond the origins, some symbols are based on the ideals of everyday life,

and reinforce the characteristic of each boundary. Thus, symbols emblazoned on the boundary have the potential to be a method of conveying various contents, but they have existed in a uniform manner through almost same forms and similar expressions. For example, doors of the Ten Longevity Symbols, which can be observed frequently in demarcation, have been preserved in a similar shape without changing designs for a long time while the meanings of good omen are cut off and it has become an unnoticeable fixed expression of boundary.

After moder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decor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fields of architecture, design, and fine art. Even today, decorations are considered as ancillary factors, and is gradually disappearing into everyday landscapes. Boundaries contact people and architecture within the human scale, and symbols emblazoned on boundaries can be an effective medium to convey specific contents to the person who encounters architectural places. These poi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ealing the identity of space. In addition, various landmarks that express the unique individuality of each tenant can inspire everyday creativity in this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and efficiency have been prioritized that led to the state of creating similar landscapes.

Based on these possibilities and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observation is

made on the boundaries of urban landscape that are routinely encounter, and analyzed meaning and expression of the symbols embellished in 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propose visual communication elements and their expressions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ie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observation. In addition, space has th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an integrated identity when expanded into other associated media through a single unified visual language. With this point, research on how boundary expressions can be effectively extended will be made, focused on printed matters.

This study is designed to illuminate the value of symbols adorned with everyday landscapes and landmarks that have not been noticed. The visual symbol of the boundary can be an effective medium for embodying the integrated identity of space and printed matter, and further put meaning into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it can be extended to urban identity. Afterward, research on the use of various visual symbols that are observable in everyday landscapes can be conducted.

Keyword: everyday landscape, border, symbol, expression, decoration, urban space

Student Number: 2016-21334